

성가소비녀회 (聖家小婢女會)  
LITTLE SERVANTS OF THE HOLY FAMILY  
www.holyfamily.or.kr

2019년 12월 25일  
제8호

# 강생의 길을 따라

Along the way of the Incarnation



0272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9길 46  
46, Gireum-ro 9-gil, Seongbuk-gu, Seoul, Korea  
Tel 02)940-5800  
Fax 02)943-1603

www.holyfamily.or.kr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는 선교사일 것입니다.  
(수도자 피정 141쪽)

We, as missionaries, are called to poverty among  
the poor to be more like Jesus.

04 선교 지역 소개 : 필리핀

편집부

20 슬픈 안드레아

고 그라씨아 수녀

28 보물이 묻혀 있는 밭으로

이 필로메나 수녀

33 나를 돌보시는 하느님

이 크리스틴 수녀

37 필리핀에서... 감사드립니다

최 보스코 수녀

42 필리핀에서의 아름다운 선교

이 프란츠 수녀

48 캄보디아에 사는 베트남 사람들 이야기

김 온유 수녀

60 쫄나움 성당 가을 이야기

이 마리아콜베 수녀

66 우리의 작은 희망의 씨를 뿌리며

이 체칠리아 수녀

69 작은 것을 일구어나가는 소비녀!

김 마리비타 수녀 · 이 폴 수녀

74 해외 선교를 시작하며

정 요안나프란치스카 수녀

77 후원

78 해외 선교 지역

#### 2019년 제8호

「강생의 길을 따라」 선교지는 성가소비녀회 설립일에 연간 1회 발행하며,  
모든 이들과 함께 선교 체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발행처 성가소비녀회 0272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9길 46

발행인 이 프리스카 수녀

발행일 2019년 12월 25일

홈페이지 [www.holyfamily.or.kr](http://www.holyfamily.or.kr)

표지사진 캄보디아 쫄나움 성당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 대축일 미사 전에 성녀상 앞에서





## 필리핀 Philippines



공식 명칭 : 필리핀 공화국  
 위치 : 동남아시아 동북쪽  
 수도 : 마닐라  
 인구 : 106,512,074명(2018 추계)  
 기후 : 아열대성 기후  
 언어 : 타갈로그어, 영어  
 종교 :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교  
 정체 · 의회형태 : 중앙집권공화제, 대통령중심제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의 국가로서 북쪽에는 대만, 서쪽으로는 베트남이, 남서쪽으로는 말레이시아 그리고 남쪽에는 인도네시아가 자리 잡고 있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해양국이며 한국 영토의 3배 크기이다. 루손, 비사야, 민다나오 세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대의 섬인 루손, 민다나오 섬이 국토의 70%이다. 7,107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대부분은 무인도이고 880개의 섬에만 사람이 살고 있다. 이중 이름이 붙여진 섬은 2,700개이다. 열대성 몬순의 영향으로 연평균 기온은 27도이다.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 있으며 12월~2월이 필리핀의 겨울로써 비교적 기온이 낮고 비도 적은 편이나 5월에는 30~40도의 기온이 웃돈다.





01 마젤란의 십자가



02 호세 리잘

행정구역은 주, 시, 군, 그리고 바랑가이로 나뉘며 17개의 지방과 81개의 주로 나누어져 있다. 필리핀 국민을 흔히 필리피노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말레이 인종에 속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친 이주의 결과 약간 변형된 것으로 풀이된다. 첫째, 아시아 대륙과 연결되어 있던 빙하기에 동남아시아에서 건너온 아에타족의 조상 둘째, 대륙에서 분리되고 난 뒤 인도네시아, 중국의 화남, 인도차이나 방면에서 바다를 건너온 산지 미개발 부족의 조상 끝으로 BC 2~3세기부터 14~5세기 사이에 인도네시아 방면에서 건너온 문명화한 여러 평지 부족(오늘날 필리핀인의 대부분)의 조상들이다.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고립된 정착 생활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은 현재의 여러 부족 사이에 100여 개의 언어 및 방언이 존재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언어는 1946년 독립 이후 따갈로그어를 기초로 한 필리핀어가 국어로 쓰이고 있으며 영어도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16세기부터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한 필리핀은 스페인 탐험가들에 의해 발견되기 오래 전부터 인도와 말레이 인들과 중국 상인들이 이미 살고 있었다. 1521년 페르디난도 마젤란이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아 필리핀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필리핀이란 국가 이름도 스페인 왕 필립 2세의 이름에서 온 것이다. 그 후 1565년부터 330여 년간 스페인의 지배하게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가톨릭이 전파하게 된다.

19세기에 들어 스페인의 식민지 정책이 다소 유화된 틈을 타 필리핀의 대표적인 인물인 호세 리잘은 사회 운동가이며 시인이고 의사이다. 1892년에 필리핀 민족 동맹을 결성, 사회 개혁을 시도하다 독립되기 2년 전인 1896년에 식민 당국에 의해 처형된다. 필리핀의 영웅으로 마닐라에 호세 리잘의 기념관과 공원이 조성되어 그의 업적을 기린다.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패한 스페인은 파리조약에 따라 미국에 2,000만 달러를 받고 필리핀, 괌 등의 지배권을 미국에 양도했다. 1941년 일본은 예고 없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고 1942년 마닐라를 점령, 1945년까지 다시 일본의 통치하에 있게 되었다. 미국 식민 지배하에 있게 된 필리핀은 1946년 일본이 망한 이듬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며 오랜 세월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었고 미국 지배를 계기로 영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스페인이 종교를 통해 필리핀의 민족정신을 말살하려 하였다면 미국은 영어를 통해 민족의식의 약화를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독립 이후에도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계속되었다.

필리핀의 대통령 가운데 대통령 막사이사는 일본 식민지 시기부터 싹트기 시작한 공산주의 세력을 억제하고 민족주의를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재임 기간 중 그의 가족이나 측근에게 어떠한 혜택도 주지 않았고 도로 다리 및 건물 등이 자신의 이름을 따라 불리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으며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는 데 공헌하여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게 된다.

독립 후 공화제를 채택한 필리핀은 1965년 미국이 후원한 페르디난도 마르코스가 필리핀의 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하면서까지 21년간 독재한다. 그의 부인이 사치스럽기로 유명한 이멜다 마르코스이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경제 상황이 좋았으나 마르코스 정권의 독재와 부패, 과도한 빈부격차로 경제적으로 몰락하게 되었다. 선거부정으로 1986년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군부마저도 군사 시위에 참여, 그는 하와이로 망명하게 되었다.



03 배라나케 Day에 전통 옷 입고 행렬



2016년 검사 출신인 현 대통령인 두테르테가 필리핀의 제16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초법적 살인을 통해 범죄를 일소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이에 가톨릭 지도자들이 이 행위를 반대하자 ‘위선적이며 추문을 일으키는 멍청한 조직’이라고 비난하며 가톨릭교회의 지도자들이 박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1988년 다바오의 시장이 되면서 많은 범죄자들을 처형해 징벌자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강력한 테러 진압과 마약 퇴치 작전을 벌이면서 범죄 용의자 1,700여 명을 재판 없이 처형하여 인권 침해라는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총 22년간 다바오의 시정을 이끌었다.

필리핀의 민족성을 보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는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오랜 시간의 식민지 시기를 거친 역사적 특성에서 온 것으로 이해되며 연중 열대 기후의 특성도 낙천적인 면과 힘들게 일하지 않는 필리핀 국민들의 민족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필리핀의 문화는 330여 년에 걸친 스페인의 통치로 라틴 문화를 곳곳에서 보게 된다. 이것은 다른 아시아 문화권과 구별되는 큰 특징이다. 아시아 유일의 가톨릭 국가여서 신앙심이 문화 전반을 지탱한다. 축제마다 화려하게 장식한 성상들과 열정적인 종교의식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바랑가이 수호성인을 받드는 축제는 농민 생활의 단면 중 하나이다. 여흥을 좋아하는 필리피노들이 페스티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일 년 내내 크고 작은 다양한 축제들이 펼쳐진다. 또한 대나무를 엮갈아 가며 흥겨운 리듬에 춤을 추는 대나무 춤은 필리핀의 가장 유명한 전통 춤이며 십자가 모양으로 대나무를 엮갈아 놓고 댄서가 중앙에서 대나무가 움직일 때마다 춤을 춘다.

04 닭싸움  
05 대나무 춤



06 아띠아띠한 축제

필리핀 사회는 수십 년간 정치와 경제의 실패로 인하여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급속도로 빈민가가 늘어 가는데, 특별히 스쿼터 에어리어로 칭하며 대부분이 불법점거 거주 지역이다. 대표적으로 메트로 마닐라와 세부에 집중되어 있다. 마닐라는 케손, 블라칸, 파사이 지역 등 셀 수 없이 많고, 세부 시에는 바랑가이 루즈, 맘발링, 로레가 지역이 알려진 대표 빈민가이다. 이중 양헬레스와 같은 도시에서는 불과 50~100달러 정도에 성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이 금액은 시골의 여성들이 가사도우미나 사리사리 스토어(필리핀식 구멍가게)에서 한 달 5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는 것에 비하면 매우 큰돈이라서 유혹이 많다. 빈민가에서 여자들이 성 매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마약 또한 담배만큼 구입이 용이하였으나 2016년 6월부터 ‘마약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에 의해 표면적으로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인들은 도박을 아주 좋아하며 닭싸움은 그들이 도박에 몰두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에서 유행하는 하일알라이도 필리핀에서 인기가 있는데 경기에 많은 돈이 걸린다. 이전 식민통치자들을 모방하는 필리핀인들의 능력은 지프니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미국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남기고 간 군용 지프 차



량의 뒷부분에 좌석을 늘리고 외부를 화려한 색으로 치장한 대표적인 교통수단이다. 오늘날 지프니는 필리핀인들에 의해 자체 제작되고 있다. 마르코스에 의해 전파된 신 사회사상은 1980년대 민중의 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1970년대 필리핀인들의 국가 의식을 고취시켰다.

필리핀 사람들의 주식은 우리와 같이 쌀인데, 보편적으로 찰지지가 않다. 그렇다고 찰진 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종의 찰쌀인데, 이름은 말락킷이라고 한다. 국물이 없는 국수 종류를 통칭하는 말로써 한국의 잡채 스타일로 고기와 채소를 같이 섞은 요리로 뽕싯이 있으며 찌개라고 할 수 있는 아도보, 대표적 잔치 음식으로 통돼지구이 레촌, 국의 일종인 시니강, 중국의 광둥음식으로 시오마이 등이 있다. 식욕이 떨어졌을 때 한 번쯤 찾아 볼만한 고토가 있으며 밥과 함께 주요 먹거리는 뽕싯살(뽕)이다. 많은 요리들이 자연적 풍미를 강화하는 신선함과 단순함을 지닌다는 장점이 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열대과일이 있다.

07 뽕싯 08 아도보 09 레촌 10 판데살 11 교통 수단



12 바클라란 시장

13 수교 70주년 행렬



1949년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수교를 맺은 첫 번째 국가이다. 6.25 전쟁 때 7천 명의 군대를 파견한 동아시아 최대 참전국이며 서울 장충체육관이 필리핀의 기소로 지어졌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2017년 필리핀 교육부는 국립 중·고등학교의 제2외국어 교육 과정 중에 한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추가하는 등 한국과 필리핀의 역대 대통령들이 서로 방문하며 양국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 대통령인 두테르테도 2018년 한국을 방문하여 교역, 투자, 인프라, 국방, 방산, 농업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올해 한국과 필리핀은 수교 70주년을 맞이하였다.

### 〈성가소비녀회의 필리핀 선교〉

필리핀의 3개 군도(루손섬, 비사야섬, 민다나오섬)중에 우리 수도회가 처음으로 파견된 곳은 루손섬에 있는 수도 마닐라(메트로 마닐라)의 문틴루빠시이며, 현재는 빠라나케시로 이동하여 사도직을 하고 있다.

### 마닐라의 문틴루빠시

2009년 11월에 필리핀에 파견되어 가난한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2011년 1월 문틴루빠시의 임대주택 내에서 첫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곳은 최고 보안상태의 National Bilibid 교도소(필리핀에서 가장 중한 죄수들을 수용)가 있는 유명한 지역이다. 죄수들은 문틴루빠시를 교도소라 불렀는데, 현재 이 부정적



인 이미지는 바뀌어 필리핀에서 가장 진보적인 시로 알려져 있다. 이 교도소 뒤편에 있는 산을 허물고 정부에서 South Ville3이라는 임대주택을 지어 문틴루빠 근교의 스쿼터(불법 주거지역) 지역에서 살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급하여 이곳으로 이주해 오게 되었다.

South Ville3에는 7,863 가구가 형성되었고 당시 공동체를 시작하려던 우리는 주변에 주택을 얻어 출퇴근할 것을 권유받았지만 선교를 시작하는 시기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South Ville3에 작은 집을 얻어 살기로 했다. 공동체를 시작하기 전 주민들의 집을 방문하여 면담을 하고 지역 주민들의 상황을 접하게 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South Ville3의 주택 사업은 정부의 전반적인 생계 대책 없이 주거지만을 형성해서 이주시킨 곳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는 상업지역이 전혀 없고 따라서 일자리가 없었다. 시내라도 나가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곳까지 가기 위한 교통비도 그들에겐 버거운 상황이었다.

주민들의 생활 형편에 있어 비정규직 직업이 대부분이라 월수입이 불규칙하며 상상 이하의 최저수입으로는 생계유지도 어려워 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아이들이 많았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만 교복, 학용품, 교통비, 프로젝트 등을 준비하는 비용이 부담되는 궁핍한 생활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학교를 중단하는 것이었고, 심지어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도 많았다.

주거환경은 국가에서 지어주는 임대 주택으로 일률적으로 약 8.5평의 좁은 공간에 한 주택에 보통 7~8명의 가족이 살고 있었으며, 한 가구에 2~3가족이 사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10명이 넘는 숫자가 한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무지와 생활고에 허덕이는 부모들의 무관심 속에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아이들이 많았으며 가톨릭 국가이지만 종교 교육은 물론 도덕, 윤리 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이 많았다.

종교 현황은 이곳에 상주하는 어느 종파의 선교사도 없었다(가톨릭 성당이 없어 주일에는 스포츠 센터에서 미사를 함). 개신교에서는 주택 하나를 임대해 사무실로 사용하며 토요일과 주일에 예배를 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가정방문을 하면서 필요한 것을 나누고, 환자들에게는 투약과 상처치료를 해주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병원에 함께 동행해 주기도 했다. 가난함 때문에 기본 교육조차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한국의 All

My kids 재단과 연결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성당의 봉사자들과 복사들을 대상으로 교리교육과 피정 지도를 하고, 주 3일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등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교회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을 도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South Ville3 지역이 급격히 발전되어가는 양상을 보여 수도회의 카리스마에 충실하기 위해 더 절박한 곳을 찾아 빠라나케시의 묘지와 그 주변 지역을 방문하면서 우리의 고유 사도직을 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하였다. 현재 문틴루빠시의 South Ville3 지역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방문하여 All my kids 장학생들과 지속적으로 만나며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14 올마이키즈 장학생들과 함께







15 무덤 위에서 노는 아이들

## 마닐라의 빠라나케시

2014년 1월 공동체와 사도직 장소를 빠라나케시로 이동하였다. 빠라나케시는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에 위치한 도시로, 면적 47.69km<sup>2</sup>, 인구 55만 명의 도시이다. 1572년 11월 30일 신설되었으며 서쪽으로는 마닐라 만과 접하고 있다. 카비하스난 지역을 중심으로 주 사도직 활동 지역은 빠라낙 묘지, Tramo3, Our Lady of Petae 지역이다.

### 1. 빠라낙 공동묘지

문틴루빠시의 South Ville3과 같이 공동체가 이동하기 전 묘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여 그곳의 상황 등을 알아보았다. 2013년까지 묘지 앞 공터에는 라스피니아스와 빠라나케시의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으로 그곳에 사는 대부분 사람들은 쓰레기를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쓰레기 집하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자 수입원을 잃게 되었고, 묘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음식과 거리에서 구걸하여 얻은 것으로 살아간다. 전형적인 도시빈민지역으로 의식주 모든 부분에서 노출된 상태였다. 공동묘지 내에서 무허가로 무덤과 무덤 사이 혹은 무덤 위에 판자와 천막 등을 이용해 주거지

를 형성하여 공간이 아주 비좁고 비위생적 일뿐만 아니라 위험한 곳이었다. 그나마 그 자리도 차지할 수 없는 가족들은 바로 옆에 있는 공터에서 노숙하고 있었다. 2013년까지 묘지 내 거주 가구는 대략 150가구 정도였고 쓰레기 집하장 주변에서 천막을 치고 살던 사람들이 집하장이 옮겨지고 살 곳이 없어지면서 계속 묘지 안으로 이주하고 있는 상태였다.

주거 환경은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 묘지 안에 있는 우물에서 씻거나 빨래를 해야 하고, 화장실도 없어 주변의 어느 곳이든지 화장실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 피부질환이나 각종 질병이 만연한 상태였으며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 악취와 소각하며 발생하는 매연 속에 노출되어 있어 그 열악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곳을 방문하던 초기에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는 배설물을 피해 발을 디디느라 몹시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다. 전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집들 중에는 묘지 밖의 주변 주택들로부터 불법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불법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이 많은 전기 요금을 내면서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이 비용은 전기를 사용하게 해준 주인집의 요금까지도 가능할 정도의 금액인 것이다.

주 수입원(생계 문제)은 묘지에 오는 가족들의 장례가 수월하도록 14명의 장례 봉사자가 한 팀이 되어 도와주면서 받는 것이다. 유가족으로부터 한 시신 당 받는 1,500페소를 14명이 나눈다고 한다. 일주일에 대략 20건의 장례가 있고 따라서 봉사자 1인당 주 약 2,142페소(약 5만원)의 수입으로 하루에 세끼 식사가 가능(밥에 반찬 하나)한 수준이라 볼 수 있겠다. 또한 개별적으로 배정된 묘지 관리자로서 유가족으로부터 1년에 1번 받는 수고비를 받거나 수시로 기념일

16 공립내 묘지에서 주일 미사 참석 중  
17 위령의 날 미사후 묘지 축성





에 오는 유가족으로부터 소액의 금액을 받기도 한다. 묘지 근처 쓰레기 집하장이 철거되면서 약 절반 정도는 집하장 근처에 남아있는 집들 속에서 살고, 나머지는 무덤 쪽으로 옮겨와 판잣집을 짓고서 이주했다. 대부분 직업이 없고, 직업이 있는 사람은 3~6개월의 계약직으로 환경미화원, 쇼핑물 청소나 바랑가이에서 임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하루에 몇 시간씩 바랑가이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보조자의 일을 하기도 한다. 그나마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위의 일조차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그곳에 사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를 중단한 채 무덤에서 떼를 지어 또래 집단을 형성하고 있어 마약과 성과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 아이들의 경우 무덤 위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들의 놀이터이고 오락 장소였다.



18  
전기선에서 구리 분리

2. Our Lady of Peace의 스쿼터(열악한 불법 주거 지역)

이 지역은 임시 주거지로써 공동묘지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묘지에 거주하던 150여 가구 사람들이 2015년 5월 초 강제 이주되었다. 바나나 밭을 메워 만든 땅으로 비가 오면 어른의 허리까지 침수되는 곳인데, 이곳은 빠라나케시와 그 인근 지역의 스쿼터 지역주민들이 시의 도시 계획에 따라 강제로 이주되어 만들어진 지역이다. 강제 이주 되어 올 당시 이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공터 상태로 한 가구당 4개씩 나무 기둥만을 주고 스스로 집을 지어 살게 하였다. 이곳 역시 수도, 전기 시설은 물론 하수구 시설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공동화장실조차 없는 상태로 기본 위생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그에 따른 질병들, 예를 들면 다양하고 심한 피부 질환, 결핵,

회충 등에 노출되어 있었다.

3. Tramo 3

빠라냐 공동묘지 맞은편 지역으로 쓰레기 집하장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빠라나케시에서 임대주택을 지어 120가구에게 지급하였다. 전형적인 도시빈민 지역의 형태로 여러 주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주 수입원은 쓰레기를 줍고 분류하여 파는 일이며, 그 외에 교통수단 중의 하나인 Ped-Cab(자전거에 수레를 달아 사람을 태우는 교통수단)을 운전하거나, 건축공사장의 막노동일 등의 일을 하며 살고 있다. 해를 거듭하면서 시 자체 내에서 새로운 교육제도를 내놓고 있지만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 부재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19 성소자 모임



19





20 2018년 메티칼미션

## 사도직 활동으로

가정 방문을 통하여 Our Lady of Peace지역 화장실 만들어 주기, 출생신고를 못한 사람들의 늦은 출생신고에 대한 정보를 주어 그들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께 하며 주민 카드가 없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주민 카드 만드는 일을 돕기도 한다. 한국의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후원물품들을 나누고 새 학기에는 학용품을 지원하기도 한다. 감옥에 있는 가난한 지역 주민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돕고 있다. 먼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며 동사무소나 시청, 병원이나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해당 부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함께 준비해 주고 있다.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병원으로 안내하거나 동행하고,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회충약과 영양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2017년도에 Our Lady of Peace와 Tramo3 지역 주민을 위한 성가복지병원의 의료 봉사가 있었으며 2018년 4월에 서울대교구 후원으로 성가복지병원의 2차 의료봉사 활동도 있었다.

All My Kids와 기쁨나눔재단 그리고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Tramo3, Our Lady of Peace, 기타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

으며 All My Kids 장학생들의 지속적 돌봄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선생님들과 협의하기도 한다. 학생들과 기도 모임, 성경 나눔, 여름캠프 등을 하고 있으며 미사 및 주요 전례에 참석하기를 독려하고 있다. 아직 부분적이긴 하지만 어머니들과 성경 나눔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방문 시에 응급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돕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지역 청소년들과 주민들과의 기도와 성경 나눔을 활성화시키려고 한다. 또한 가난한 이웃들의 공통 문제인 열악한 위생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공중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또한 지역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생태환경 보전에 관한 작은 단위의 모임을 시작하였으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더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기본 인권을 찾고, 지역 사회 안에서 이웃들과 함께 행복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일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리라 믿으며 기도한다.

21 한국에서 온 후원물품 나눔





## 슬픈 안드레아

필리핀 빠라나케  
고 그라씨아 수녀

안드레아를 처음 만난 것은 필리핀에 온 지 1년 뒤였다. 빠라나케 시립 공동묘지에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필요한 일을 돕고 있었다.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묘지 정리를 시작했고 당시 묘지에 살고 있던 150여 가구의 사람들이 걸어서 약 15분 정도 걸리는 Our Lady of Peace 임시 주거 지역으로 옮겨 오게 되었다.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습한 바나나 나무들이 있던 곳이라 준비 없이 갑자기 옮겨진 상황이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열악한 주거 환경이었다. 시신이 묻힌 곳이라 ‘공동묘지’라는 단어 자체로도 기괴하고 두려움을 느꼈지만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며 사는 것처럼 보였다. 따로 집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었던 묘지를 아쉬워하는 사람들과 말은 하지 않았지만 늘 무서워 옮겨진 이곳이 좋다는 사람들로 반반이었다.

처음 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고 열악한 환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고 그것은 꽤 오래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무언가를 먹을 때나 즐거울 때에도 늘 그들이 떠올라 힘들었다. 비가 오면 “아, Our Lady of Peace에는 비가 새겠구나! 아이들은 옷을 입은 채 비를 맞으며 샤워를 하겠네? 사람들은 문을 꽂꽂 닫고 아무도 나오지 않겠지? 아이들은







비가 와서 학교에 가지 않겠구나?”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로 가득하다.

방문을 다니다 보면 유난히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부모들이 있다. 그 양상은 어린 아이들을 집에 내버려 두고 어른들은 하루 종일 집에 없다. 돈을 벌러 나가는 것도 아니다. 아주 가끔은 먹을 것을 두고 갈 때도 있지만 가난한 그들은 대부분 먹을 것이 없을 때가 더 많다. 처음 몇 번은

아이들을 이웃들이 챙기기도 하지만 모두가 가난한 형편이라 계속해 챙겨줄 수는 없는 일이다. 음식을 먹을 때도 영양소가 고루 갖추어진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것으로 최소한의 양을 먹으므로 부모가 돌보지 않는 아이들에게 영양실조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죽는 아이들도 더러 있다.

모지 사람들이 이사를 하고 처음 Our Lady of Peace 지역을 방문했을 때 마을 밖 도로변에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었다. 그 가운데 누나로 보이는 유난히 작은 단발머리 여자아이와 눈이 둥그런 남자아이를 보았다. 말이 없는 안드레아는 눈빛이 슬퍼 보였다. 그 모습과 표정이 오래도록 나의 기억에 남게 되었다. 신발도 신지 않고, 아무것도 입지 않은 안드레아가 가여워 가지고 있던 작은 비스킷 한 봉지를 주었다. 그런데 안드레아는 먹지 않고 손에 쥐고만 있는 것이다. 함께 갔던 필로메나 수녀님과 나는 조금 뒤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안드레아가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 봉지조차 뜯지 않았다는 사실을... 집에 있는 동생 다니엘(가명)에게 주려고 먹지 않은 것이다. 안드레아의 집은 Our Lady of Peace에서 제일 안쪽 골목 모퉁이에 있다. 엄마 아빠와 누나 길리안(가명)과 다니엘이 함께 살고 있었다. 부모는 세 아이들을 돌보지 않아 동네에서 제일 더럽고 놀 꼬질꼬질했다. 자연스

럽게 우리의 손이 많이 가야 하는 아이들이었다. 길리안은 그냥 보기에도 영양실조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시 길리안은 다섯 살, 안드레아와 다니엘이 세 살과 두 살 이었다. 자존심이 강한 안드레아는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끔 음식이나 간식을 챙겨주면 아주 좋아하며 잘 먹었다.

안드레아의 엄마는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소문난 엄마 중 하나였다. 이웃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이 마약을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직접 본 적은 없다. 다만 동네를 돌아볼 때면 가끔 안드레아의 부모가 집안에서 늘어져있는 것을 보게 되고 마약을 한 것으로 추측할 뿐이었다. 이런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영양실조로 아이들을 잃은 경험들이 있다. 심지어 우리가 아는 어떤 집은 세 명까지도 잃게 되었다. 그리고 남아있는 형제들은 사회복지 기관에서 부모와 분리시켜 돌보기도 하는데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던 아이들은 사회복지 기관에 가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채 죽는 경우도 있다. 안드레아도 동생 한 명을 그렇게 잃었다.

#### 안드레아 동생 다니엘

어느 날 우리가 Our Lady of Peace를 방문했을 때 다니엘의 약지 손가락이 굵아 통통 부어 있었고, 다니엘은 손가락이 아파 계속 울고 있었다. 다니엘의 부모가 없

어서 왜 손가락이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도 없었다. 이웃 아주머니가 반지가 끼워졌던 손가락이라고 하여 아마도 반지 때문에 생긴 상처가 났나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장이라도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았지만 부모도 없고 이웃들 어느 누구도 선뜻 부모를 대신해 병원에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병원에 데려가려면 목욕도 시켜야 하고 옷도 갈아입혀야 하지만 이것이 준비된다 하더라도 생년월일도 모르고, 언제부터 이런 상처가 생겨 아프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기에 함께 병원에 간다 한들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냥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그날 오후 내내 다니엘이 아파 울던 모습이 마음에 걸려 소독약과 연고를 챙겨 다시 다니엘 집으로 갔다. 다행히 엄마가 있었고 다니엘을 보던 진료소에 데리고 갔었는데 의사로부터 손가락을 잘라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어처구니없게도 아이 엄마는 다니엘이 죽으면 죽었지 손가락을 자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니엘을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말에 엄마도 함께 따라나섰다.

빠라나케 시립병원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검사 결과 놀랍게도 다니엘의 손가락에 아직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오래전에 끼고 있었는데 작아진 반지를 빼주지 않아 살에 반지가 묻혀버렸고, 그 안에서 끓아 손가락이 상하게 된 것이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하지만 시간제 의사만 있고 그나마도 수술 스케줄이 모두 잡혀있어 빠라나케 병원에서는 할 수 없다면서 마닐라의 필리핀 국립 정형외과로 가라는 것이다. 하루만 지체해도 손가락을 잘라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어디에 있는지? 어떻



게 가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병원 주소를 검색하여 전철과 지프니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마닐라 시에 있는 필리핀 국립 정형외과에 도착했을 때엔 저녁 일곱시가 훌쩍 넘어 있었다.

다니엘 손가락의 반지를 제거하기 위해 응급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의사 진료와 면담, 그리고 의료 사회복지과에 도움을 청하는 등 여러 절차를 통하여 무료로 수술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행히도 담당 선생님이 가능한 모든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고 친절한 설명과 함께 수술 후 필요한 약이 병원에 없을 때 그 부분은 우리에게 책임져 달라고 했다. 너무 고마웠다. 새벽 두 시경에 수술을 하여 다니엘이 병실에 옮겨지는 것을 보고 집에 돌아오니 새벽 다섯 시였다.

필리핀 국립 정형외과 병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다. 최고의 정형외과 의사 50여 명이 항상 대기하여 환자가 오는 즉시 필요한 진료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수입 정도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아과 병실은 몹시 열악했다. 병실 하나에 몇 십 명이 넘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함께 있어야 하고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형편에 따라 도움을 받으며 치료받고 입원할 곳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

##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었다. 물론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은 너무 가난해 도움이 없이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까지 갈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다니엘이 병원에 입원하고 우리는 사도직 일정대로 오전에 방문과 장학생 모임 등을 하고 집에 돌아와 서둘러 점심을 먹고 매일 문병을 갔다. 다니엘의 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보내며 집에 간다고 하였다.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다 보니 24시간 병실에 있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다. 보통 환자를 병원에 데려가면 치료비에 대한 도움은 주지만 모든 상황이 어려운 이웃은 말 그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도와주어야 한다. 교통비, 보호자 식비, 간식비, 비누, 샴푸, 수건, 물 그리고 갈아 입을 옷까지도...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대부분 필요한 것들을 직접 구입해서 주지만 돈으로 주어야 할 때도 있다. 계속 문병을 다니던 어느 날 우리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엄마들이 에워싸며 다니엘의 엄마가 도망갔다는 것이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울고 다른 아이의 보호자들



이 달래보려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난감했다. 입원 치료는 다니엘에게 꼭 필요한데 보호자가 없어 할 수없이 간호사에게 요청해 간병인을 구해야만 했다. 다행히 잘 돌보아 주는 분을 만나 다니엘을 부탁하고 저녁 늦게야 돌아올 수 있었다. 다음날 다니엘 집을 방문했는데 남편과 함께 어디론가 나가고 없었다. 며칠 후 다니엘의 부모는 병원으로 돌아왔다.

이런 일이 있는 지 며칠 뒤 병실을 방문했을 때 황당하게도 다니엘의 침대가 비어 있었다. 퇴원했다는 것이다. 퇴원을 시킨다고 알려만 주어도 이런 황당함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다. 의사선생님 말에 의하면 치료도 좀 더 하고 치료되어 가는 과정을 보며 실밥도 제거하고 난 후 퇴원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퇴원시켜 달라고 졸라 어쩔 수 없었다 한다. 다음날 다니엘 집을 방문했을 때 아이 엄마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있었다. 알리지 않고 퇴원시켜 미안하다거나 수술하게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하고 사는 일들이 어려운 것이다. 아이를 돌보는 것이나 아프면 치료를 받게 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일, 고맙다고 하거나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일주일 뒤 실밥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가지 않았다. 어렵게 수술한 손가락이 아무리 치료를 하지 못해 도로 상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되었지만 그들

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한 속수무책이다. 보건 진료소도 권유했으나 가지 않아 우리는 거의 포기했었다. 다니엘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했다. 약속된 진료시간이 3주가 지나서야 겨우 실밥을 제거할 수 있었다. 다니엘은 퇴원 후 거의 죽을 것 같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를 몇 차례 지나고 살아났다. 어떤 때엔 어린 다니엘 스스로가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다니엘이 병원에 수술을 하고 치료받을 당시 다니엘 엄마는 임신 중이었고 그 뒤 아들 쌍둥이를 낳았다. 자녀를 낳는 좋은 일에 걱정이 앞섰다. 그러던 며칠 뒤 내가 Our Lady of Peace를 방문했을 때 다니엘의 이웃들이 우르르 다가와 다니엘 엄마가 쌍둥이 중 하나를 500페소에 팔았다는 것이다. 500페소는 한국 돈으로 약 만 오천 원 가량 되는 돈이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아마도 키우기 어려워 입양을 시켰고 아이 낳느라 수고했다고 아기를 데려가는 집에서 밥 한 끼 먹으라고 주는 돈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쌍둥이 중 하나가 남겨졌고, 쌍둥이 하나를 어디로 보냈는지 묻지 못했다. 이해하기 어려웠고 마음이 아팠다. 물어보는 자체가 다니엘 엄마에게도 나에게도 상처가 될 것 같았다.

어느 날 길리안이 “시스터, 나를 입양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길리안에게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은 최악인 것 같았다. 사실 자기를 입양해 달라는 소리는 다른 아이에게서도 들었지만 길리안이 그 말을 했을 때 더욱 마음이 아팠다. 얼마 전 안드레아는 할아버지가 데려가고 길리안과 다니엘 그리고 남겨진 쌍둥이 미카엘은 사회복지 기관에서 데려갔는데 하늘나라로 갔다고 한다. 어른들의 무지와 무관심이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고 아프게 한다. 물론 가난함에서 오는 무지와 무관심에서 오는 아픔이다.

안드레아와 길리안과 다니엘을 못 본 지

도 벌써 수개월이 지났다. 잘 지내고 있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이곳에서 다시 볼 수는 있는 것인지...

우리가 만나는 지금 굶주리고 슬퍼하는 가난한 이웃들, 그들은 누구인가? 이 이웃들에게 하느님은 어떤 위로를 주실는지? 이 세상 안에 그들을 위한 약속의 땅은 없는 것일까? 나는 어떻게 그들과 함께 그곳에 갈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가 아니면 훗날이라도 이 사람들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있는 걸까?





# 보물이 묻혀 있는 밭으로

필리핀 빠라나케  
이 필로메나 수녀



필리핀은 2014년 7월 27일 인구 1억 명을 돌파하여 2019년 7월 현재 1억 8백만 명으로 세계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별 인구 순위로는 13위이다. 하지만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구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필리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질적 인구수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어린이 사망률이 높아서 출생신고를 미루는 것과 열악한 환경으로 출생신고 자체를 하기 어려운 오지 마을 사람들의 예를 들었다. 출생신고는 의무이다. 이 의무를 행하지 않을 경우 ‘가족등록부’에 공식적으로 포함될 수 없고 자국민에게 보장되는 법적 보호나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무국적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처럼 우리가 방문하는 가난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불편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음은 그들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들을 보면 알 수 있다. 혹, 인식한다고 해도 자신들 스스로 해결한 만한 최소한의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가난한 이들의 대부분은 생계수단으로 쓰레기 줍는 일을 하고 있다. 밤이 되면 거리로, 동네로, 대형 매장이나 호텔 주위로, 그리고 쓰레기들을 모아 두는 집하장



01 아이들 간식 제공

으로 수레를 끌고 나간다. 밤새 돌아다니며 모은 쓰레기들을 수레에 가득 싣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온다. 동네 공터나 집 앞에 쓰레기를 쏟아 놓고 가족이나 형제들이 함께 모여 종류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이렇게 분류된 것들을 고물상에 가져가면 종류와 무게에 따라 돈을 받게 된다. 하루 벌이로 한 끼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부모나 형제들이 병이 들어 쓰레기 줍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하루 한 끼 밥을 먹던 식사가 빵 한 조각과 커피믹스 한 잔으로 대신하게 되고, 아이들은 거리에서 구걸하여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기도 한다. 배를 굶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하루 벌이도 쉽지 않은데 7~8명의 자녀들을 돌보고 학교에 보내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다. 배움의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하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들의 삶을 고스란히 답습해 갈 수밖에 없다.





가가호호 방문을 하며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연결해 주면서 출생증명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기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하던 중에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빠라나케시에서 출생한 사람들에게 늦은 출생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 절차를 최소화하여 1년마다 불게 되는 벌칙금을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공립 묘지에서 살다가 이주해온 Our Lady of Peace(평화의 모후)의 스쿼터 지역 사람들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어른들은 나중으로 미루고 어린이 이부터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출생신고를 원하는 어머니들에게 접수를 받았다.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 종류가 상당수 있었다. 출생증명서가 없다는 것

을 증명하는 서류, 부모 주민 아이디, 재학생들의 생활기록부(작년 2018년까지는 출생증명서가 없어도 공립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했으므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교육제도가 바뀌어 유치원을 졸업해야 초등학교 입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6살 미만의 아이들은 기본 예방접종 유무를 확인하는 yello 카드 등이 필요하였다. 아이들의 예방접종 확인 카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우리는 교통비를 포함하여 모두 지원해줄기로 하였다.

출생증명서가 없어도 주민 아이디는 발급받아 해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고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우리는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 몫을 나누어 시작하였다. 출생증명서가 없다는 증명 서류를 신청하기 위해 시청 출장소로, 주민 아이디를 만들기 위해 바랑가이(동사무소)로, 또 6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예방접종 yello 카드를 재발급 받기 위해 새벽부터 보건소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을 비롯하여 부지런히 움직였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고, 심지어 약속을 깨기도 하며 교통비로 준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더디게 일이 진행되었다.

아이가 4세가 될 때까지 예방접종을 한

번도 받지 않아 혹시 남아 있는 예방접종이 하나라도 있다면 접종 후 yello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또는 잃어버린 yello 카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 보건소를 방문해야 했다. 이곳은 아침 8시에 일을 시작하는데 6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기 때문에 접수 마감이 조기에 끝나게 된다. 새벽 미사가 끝나자마자 줄을 서고 접수표를 받아 기다렸다. 한 시간, 두 시간이 지나도 약속한 어머니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래도 오겠지 하는 기대를 하지만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아 발길을 돌려야 하는 날들도 많았다. 처음에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에 실망을 하고 화도 났지만 몇 차례 같은 일을 겪으면서 이런 좋은 기회를 놓

쳐버리는 것이 안타까워 늦게라도 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다. 정말로 마음 아픈 것은 어머니의 무지로 인해 예방접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는데 지금 진행 중인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앞다투어 서로 하겠다고 나섰던 어머니들이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것들이 나오고, 때론 잘못되어 다시 만들어야 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하나 둘 준비 서류들을 미루기 시작하였다. 공식적 절차를 밟아 서류를 준비하는 일들을 처음 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어머니들에게는 귀찮고, 어려운 과정 일 수도 있고, 공





공기관을 방문했을 때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들이 곱지만은 않았다. 그래서 더 가기 싫고, 의기소침해지고, 불편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첫 번째 팀의 서류들을 제출하기 위하여 시청에 가는 날이 되었고 모두가 들떠 있었다. 지프니(교통수단)는 우리들로 가득 찼고 마치 나들이를 가는 것처럼 모두 상기되어 있었으며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오기도 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면서 시청 로비와 현관 입구에서 기념사진도 찍고 집 근처에 와서 자축하는 점심 식사도 함께 하였다.

이제는 출생증명서를 찾으러 가는 일만 남아 있다. 몇 개월이 지나 시청에서 연락이 왔고 드디어 법적 자국민의 자격을 얻게 되는 날이 온 것이다. 한 명씩 받은 출생증명서를 들고 이 프로그램을 주관한 빠라나케시의 여성 평의원과 함께 인증샷을 남겼다. 첫 번째 그룹으로 접수를 받았던 아이들 중 12명이 출생증명서를 받았다. 서로가 처음 하는 일이라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게 된 첫 번째 결실이다. 몇 명이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것을 시작(2016년)으로 현재까지 늦은 출생신고서에 대한 정보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필요성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하고 있다. 그 사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문의하거나 도움을 청하며 출생신고를 하였고, 지금은 우리가 동반하지 않아

도 준비된 서류를 확인해 주면 스스로 시청에 가서 접수하여 출생증명서를 찾아올 수 있는 단계까지 되었으니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가난이 무엇인지, 그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를 옆에서 지켜보며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6년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며 보물과 진주 상인의 비유 말씀이 떠올랐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밭을 산다. 또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마태 13, 44-46)

내가 방문하는 그곳이 바로 보물이 숨겨진 밭이며, 내가 만나는 가난한 이들이 좋은 진주 하나하나라는 사실을 이제야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보물과 진주를 발견한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것들을 샀다. 그렇다면 내가 만나는 가난한 이들과 참으로 함께 하기 위해 내가 팔아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 ‘나로 채워진 나’를 비워가는 것... 그리고 그들을 가득 담을 수 있는 그날을 희망하며 오늘도 보물이 묻혀 있는 밭으로 밭길을 옮겨 놓는다.

## 나를 돌보시는 하느님

필리핀 빠라나케  
이 크리스틴 수녀

25년 동안의 수도 여정 중에 나는 공동체와 떨어져 사는 기회가 은혜롭게도 두 번 주어졌다. 한 번은 2004년 종신 서원 후 부천성가병원에 대한 전환 계획이 있을 때 정신과 연수를 받기 위해 광주에서 그리고 2018년 6월 28일 필리핀으로 선교 파견을 받고 언어 연수를 위해 필리핀 마닐라에서이다.

광주에서는 타 수도회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수도회의 미션에 따라 수도복 대신 사복을 입고 1년간의 연수를 했으며 나 자신과의 만남을 깊게 숙고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었다. 나를 믿고 파견해 주신 수도회에 감사함이 컸고 다른 수도회의 병원 운영에

01 학원 개설 기념일 미사







02 미사 후

대해서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은 필리핀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아니 살기 위한 언어를 배워야 하기에 공동체를 떠나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기숙사에 머물고 있다. 긴 시간 동안 학교에서 영어를 배웠지만 문법 위주의 공부였기에 선교지에서는 일상에 소통하기 위한 영어 회화를 배우고 있는데 이는 필리핀 언어인 타갈로그어를 배우는데 있어서도 필리핀 선생님이 영어로 가르쳐주기 때문에 먼저 영어를 배워야만 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말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더 큰 의미가 포함하고 있다. 즉 문자에만 국한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 역사, 관습, 사고 등을 배운다는 의미이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 첫 울음을 터뜨리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불안함을 평온함으로 바꾸고, 엄마의 젖을 빨고, 눈 맞춤을 하고 가족들의 말을 귀로 들으며 나름대로 용알이를 하고, 점차 사람과 사물에 대한 인식과 세상의 대한 인식을 가지고 기고 걸음마 하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표현해 본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 현재까지 공동체와 떨어져 지내면서 무엇보다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간혹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나는 왜 이곳 필리핀에 와 있는가?  
여기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수도 삶에서 이곳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엇보다 나를 이곳에 파견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을 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다만 내가 말할 수 있는 답은 언어를 잘하든지 못하

든지 주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아 주시며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이다.

작년 12월에 총장 수녀님께서 분원 방문차 필리핀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왜 수녀님을 이곳으로 부르셨는지 묵상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어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광야로 부르셨다. 골수와 세포에 각인된 익숙한 언어, 환경, 국내 소임에서 떠나 낯선 광야로... 광야에 선 나는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아픔이 다가왔고, 이 고통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자 이제는 광야의 삶이 현실로 다가왔다. 완벽을 추구하는 나의 성향과 홀로 있는 고독 그리고 언어가 되지 않아서 느껴야 했던 가난함은 이전의 어떤 가난보다도 더하면 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상의 대화는 물론이고 강론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있는데 함께 하지 못하는 그 가난함을... 그러나 하느님은 그 가난함에 나를 머물러 있게 두지 않으셨다. 영어는 나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의 수도 여정과 연결되어 삶을 되돌아보고 묵상하게 하였다. 때로는 그때는 알아듣지 못한 주님의 사랑을 이제야 알아듣게 되고 근본적인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하게 되었다. “왜 나는 하느님을 믿는가? 왜 수도자가 되었는가? 등등. 영어를 배우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

어려움을 은총의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영어가 나의 삶이고 나의 언어로 받아들인데 꼬박 1년이란 시간이 내게 필요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설렘도 있지만 한국어가 골수와 온몸의 세포에 기억되어 있어 잠시라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쉽게 잊혀지기 때문이다.

영어 그룹 스터디를 하던 시기의 이야기이다. 카멜론 수녀님과 7명의 베트남 청원자들로 구성된 그룹에서 4개월 정도 함께 공부했다. 청원자들은 20대 청년이었고 수녀님은 30대 초반 이이라 그런지 잘 알아듣고 대화를 했지만 나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저 인내하고 주님 대전에 봉헌하려 했지만 마음과는 달리 육체적으로 아프기도 하였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것 또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 공동체의 사랑이 있었고, 끊임없는 선생님들의 격려와 이곳 사람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독 마음이 가라앉아 어두울 때 거리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 보는 나를 향해 유난히 인사를 건네곤 했다. 나는 그들을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라고 느끼게 되었다.

마지막 영어 수업에 그룹원들과 선생님들에게 “이제 영어가 나의 언어이고, 나의 삶을 받아들였다.”라고 고백하자 선생님은 “그동안 수녀님의 어려움을 지켜보



왔고 함께 하였는데 잘 극복해서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이 참으로 고마웠고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다. 영어를 배우는 1년 동안 몇 가지 점을 깨닫게 되었는데, 첫째는 음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머무는 기숙사에서는 개인이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바쁜 일상에서 소임을 하다 보니 음식을 준비할 기회가 없었고 만들 자신도 없었으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다 보니 맛과 향기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대로 기억을 따라 만들어 보니 비슷한 맛이 나오는 것이다. 스스로 음식을 준비하면서 일상의 어려움도 극복하게 되고 자신감도 함께 커지게 되었다. 지난주에는 기숙사에서 생일을 맞이하는 수녀님이 있어서 각 나라 음식을 준비하는데 한국 잡채를 만들기도 했다(현재 기숙사에는 솔로몬, 아일랜드, 중국, 파푸아뉴기니, 앙골라, 말레이시아, 인디아 국적의 수녀님들이 머물고 있다).

03 기숙사에서



둘째는 나의 달란트를 다시금 발견했다. 간호 소임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 상관없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다. 소임 할 때는 그냥 간호사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서는 나의 몸과 마음은 아픈 이들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되었다. 셋째는 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하신 후 열두 사도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주님은 나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나를 부르셨을까?”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다. 그것은 ‘항구함’이었다. 목표가 생기면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꾸준히 그곳을 향해 가는 모습인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다.

이제 영어 연수를 마치고 8월부터 파갈로 그어를 배우고 있는데 영어를 배울 때와는 달리 약간의 설레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가난한 이들은 영어로 말할 줄 모르고 파갈로그어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또다시 영어를 배울 때와 같은 어려움을 만날 것이고 넘어지고 또 넘어 질 것이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 설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임이고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 필리핀에서...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빠라나케  
최 보스코 수녀





지난 4월 30일 한국을 떠나 필리핀에 도착해서 5월 9일까지 빠라나케 공동체에서 지냈습니다. 세부에서 있었던 필리핀 가톨릭 청소년 모임에 참석하고 전날 도착하여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라씨아 수녀님이 잘 맞이해주고 챙겨주었습니다. 공동체에 머무르며 비자를 준비하였고, 그라씨아 수녀님과 함께 가난한 지역을 방문하면서 이곳에서 하는 소임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비해 수녀원 환경도 많이 열악한 편이지만 방문하는 지역은 인간의 기본권이 정말로 많이 부족한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질적

인 빈곤에 따른 여러 가지 윤리적, 사회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곳이지만 해맑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희망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선배 수녀님들의 활동으로 처음 만나는 저를 반겨주는 사람들과 아이들이 참 예쁘기도 했지만 자신들의 의식주조차 해결하기 힘든 상황과 대물림되는 빈곤의 악순환, 그 속에서 방치되어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위해 당신의 뭔가를 하기 위해 우리 수도회를 파견하시고 또 저를 보내신 것에 대해 확신이 들었고 부족하

지만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려 하심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5월 8일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온 필로메나 수녀님과 반가운 인사를 뒤로하고 언어를 준비해야 하기에 5월 9일 공동체를 떠나 케손시티 ALC 학원 내에 있는 기숙사인 베트남 도미니코 수녀회 공동체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저보다 먼저 온 크리스틴 수녀님은 제가 있는 곳에서 지하철 세 정거장 거리의 가까운 기숙사에 머물고 있었고, 처음인 이 생활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챙겨주었습니다. 5월 14일부터 학원에서 영어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라씨아 수녀님과 필로메나 수녀님의 도움 속에서 크리스틴 수녀님 그리고 교통사고로 다친 다리 치료를 마치고 6월 말에 필리핀에 다시 온 다비드 수녀님과 같은 학원에 다니면서 언어를 배우고, 일상생활에 적응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는 항상 덥고, 개미와 모기한테 물리며, 사실 환경도 우리나라보다 지저분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불편한 점이 많은 곳이지만 주님께서 수도회를 통하여 저에게 주신 선교 사명을 되새기며, 또한 열악한 곳에서 사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매일 감사하는 마음과 새로이 도전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학원 수업 있는 날 점심 식사를 제외하고는 식사를 스

스로 해결해야 하기에 시장이나 슈퍼에 가서 식재료를 구입하여 음식을 준비하면서 언어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생활에 대해서도 하나씩 익혀가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먼 거리에 있지만 가끔 주말에는 수녀님들이 방문하는 곳에 따라가기도 합니다. 방문을 위해 공동체를 나르면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축복을 해달라고 몰려와서 우리 손을 잡고 자기들 이마에 가져다 댁니다. 이곳에서는 성당 다니는 신자들이 성직자나 수도자들의 손을 잡고 축복을 청하며 자기 이마에 대는 풍습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라씨아 수녀님과 함께 지프니를 타고 가난한 지역에 방문했을 때의 체험입니다. 수녀님과 함께 길거리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비타민을 나누어주고, 가벼운 상처나 피부염에 소독을 해주거나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마침 수녀님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나누어 주기 위해 가는 길이라 저에게 남은 아이들을 치료해 주고 뒤따라 오라고 하였습니다. 2~3명 남은 아이들에게 비타민을 나누어주고 연고를 발라주고 있었는데, 치료받은 아이들이 어디 가서 애기를 했는지 더 많은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가져간 약품은 간단한 상처를 소독하거나 연고를 발라주는 것이 전부였는데 한 아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설명을 하면서 발뽀꿈치가 심하게 베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치료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의 상처라면 한국에서는 병원에 가서





꽤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간단히 치료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마음속으로 아이가 정말 낫기를 바라며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드레싱을 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많이 아플 텐데도 소리를 내거나 얼굴 찡그리지도 않고 드레싱이 끝나자 절뚝거리며 맨발로 아이들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최선이라지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사건이었지만 이 상황을 보면서 저에게는 많은 것을 묵상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동안이었지만 성경의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후 남은 아이들에게 비타민을 나누어 주고 수녀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 함께 한 후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소임지에서 수녀님들이 하는 일에 잠시 동반하며 느낀 체험이었지만 주님을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학원 선생님의 설명으로 알게 된 사실이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일반 보험처럼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 값이 비싸서 중상층 사람들도 의료보험 가입률이 낮다고 합니다. 중하층 사람들은 사실 아파도 병원에 가기가 어렵고 의료 처방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중국 수녀님이 고양이한테 물렸는데 30,000페소(75만원)의 치료비가 들었으며, 학원에서 점심을 준비해 주는 필리핀 자매님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 응급

실에 며칠 있었는데 48,000페소(110만원)를 내야 했고, 그것도 침대에 눕게 되면 비용이 올라가서 의자에만 앉아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곳은 임금이 우리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치료비는 매우 큰돈입니다. 이곳에서 지내게 되면서 어렸을 때의 생활을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아마도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70~80년대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모습 때문만이 아니라 현재



물질적 발전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것들을 여기서는 여전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뉴스에서 가끔 나오듯이 사람들이 충을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며, 낮에도 밤에도 위험한 곳이 많기 때문에 절대 가면 안 되는 지역이 있기도 하고 각 건물이나 곳곳의 동네에 보디가드들이 지키고 있고 지하철이나 건물을 들어가고 나올 때 소지품 검사를 꼭 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어디나 그렇듯이 착하고 순박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잘 생각하지 못했지만 여기서 만나는 필리핀 사람들과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이고 관심이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좋은 이미지로 많이 알려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잘 살고 깨끗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이 많고 한국 사람들은 예쁘고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베트남과 필리핀 사람들을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가수들이 큰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 중 대다수가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한국 음식점과 식품점을 많이 애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잘사는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을 부러워하듯이 지금은 반대로 우리가 부러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월의식이 생길 때가 있을



니다. 예전에 서양 열강이 우리에게 저지른 잘못, 서양 선교사들이 우월감에 의해 행동했던 잘못을 저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을 자주 해야겠습니다. 요즘 저는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필리 4,5-7)”를 되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필리핀에서 선교사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저희 필리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신경써 주시는 총장 수녀님과 수도회 모든 수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필리핀에서의 아름다운 선교 Magandang Misyon sa Pilipinas

이 프란츠 수녀



필리핀에서의 첫 공동체는 메트로 마닐라 내 빈민 지역을 찾아 다리품을 팔며 참 많은 곳을 방문하고 조사하며 준비되었다. 이렇게 방문 조사한 지역 가운데 미래 사도직을 전망하며 위험과 어려움에 노출된 환경에 있는 몇 곳을 선별하여 그들과 이웃이 되기로 하였다. 가난을 살아낸다는 것이 때론 힘겹고 고달프기도 하였지만 그들과 더불어 강생의 영성을 공유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인지하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순간순간 꿈틀대는 간절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았음은 은총이었다.



필리핀에서 선교를 준비하며 초반부터 족쇄가 되었던, “왜 가톨릭 신자 수가 나라 전체 인구수의 80% 넘는 이곳 필리핀인가?”라는 질문에 발목 잡혀 고민하고 사유하며 깊은 시름에 잠겨 한참을 씨름했던 기억이 있다. 또한 다른 문화와 환경으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사고와 삶의 방식이 생각보다 큰 충격을 주었던 장면은 왜 필리핀에서 선교해야 하는지,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를 되문게 하였다. 여권 갱신을 위해 이민국을 가던 중 마닐라 인트라무로스 거리에서 노숙하는 남루한 청년은 같은 또래 학생에게 그가 마시고 있는 탄산음료를 구걸했고, 아무 표정 없이 청년에게 건네주던 장면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가지는 기본적 권리’의 부재로 인해 부끄러움과 수치심의 무감각이 묵인되어도 옳은가? 먹다 만 음료를 건네는 행위가 결코 상대방을 위한 자선이 아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회적 비판의식이 있는지 의구심을 자극한 적이 이번만이 아니라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이었기에 답답함은 가중되었다. 가톨릭의 보편적 사랑이 국민 정서이기에 측은지심에 청을 거절하지 않고 자선을 베푸는 것일까?라고 생각해보지만 역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필리핀에서 왜 선교하고자 하는지 되문는 작업은 공동체 초석을 놓으며 선교를 준비할 때 목적과 비전을 바로 볼 기회를 주었다. 충격적이었던 장면을 반추하는 것 역시 선교지에서의 만남에 나 자신의 개념이 잣대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성적 사고와 객관적



판단을 하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하였다.

필리핀 선교를 결정하며 제시된 두 개의 카테고리는 강생의 영성을 공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에 함께 하기 위함과 한국 교회 내 수도 성소가 현격히 준 현실에 대한 대안이었다. 하지만 후자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견해가 현지 선교사들의 전반적인 의견이었다. 필리핀 역시 수도 성소는 이미 하향 선에 접어들었고, 그나마 지방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젊은이들이 입회하지만 고등교육

을 받은 후 절반 이상 퇴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선교지 조사와 빈민 지역 방문 그리고 중·단기간 현장 체험을 하며 보게 된 것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도 저도 못하는, 그 울타리를 벗어난다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빈곤과 반면에 굶주림에 허기진 삶을 살고는 있지만 하느님을 향한 주 바라기 모습이었다. 하느님을 알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는 무지하다고 하면 그들에게 누가 되는 표현일까? 하늘나라에서의 복된 삶을

간절히 바란 채 현세에서는 무기력하게 사는 그들을 게으르다고 단죄할 수 있을까? 빈곤의 덫에 움짱달짝 못 하는 그들의 태도를 타하기 전에 빈곤의 구조적 악에 대하여 비판하고 개선 방법을 찾는 여정이 당연한 과제였고 도전이었다.

조사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그려진, 함께 살아갈 공동체 청사진은 ‘가난한 지역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강생의 영성을 사는 공동체’였다. 그들과 함께할 때 반드시 명심할 점은 ‘시혜적인 선교가 아니라 의식을 깨우치고 바른 인식(계몽)’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과 상황에 따라 사도직 안에서 강생의 영성을 유연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와 연대는 하되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운영’이었다.

선교할 장소를 물색할 때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도시 주변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했고, 관공서 방문과 지역 교회 사목자들과 국제 수도회 선교사들을 만나 조언과 의견을 물었다. 그렇게 준비하며 최종적으로 결정된 곳은 ‘South Vile 3’이었다.

정부의 전반적인 생계 대책 없이 주거지만을 형성해서 철로와 고속도로 주변에서 위험하게 주거하던 사람들을 이주시킨 곳으로 이 지역 내에 상업지역은 전혀 없었고 일자리도 없어 생계가 어려운 곳이

었다. 일률적으로 지어진 8.5평의 열악한 주거환경이고, 한 주택에 보통 7~8명의 가족이 주거하였으며, 8.5평 공간을 간이 가림막을 쳐서 두세 가정이 사는 경우 10명이 넘는 숫자가 한 공간에 사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다. 우리도 이곳의 주택

01 문틴루빠 공동체 하우스



02 민 다미안 수녀





하나를 임대하여 살면서 가가호호 방문하며 하루를 시작하였다.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꼬마들부터 청·장년들을 만났던 시간들은 가슴 먹먹함과 동시에 훈훈한 기억들로 가득하다.

공동체 발전과 복음화를 염두에 두고 장기간 방문과 만남을 지속하며 정리된 평가는 무지와 생활고에 허덕이는 부모의 무관심으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교육, 종교 교육은 물론 윤리·도덕교육조차 되고 있지 않은 가정이 상당수여서 공동체의식 교육의 절실함, 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생

계수단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의료보험이 전혀 없어 고액의 의료수가로 인해 치료받지 못한 채 집안에 방치되어 있는 고혈압, 당뇨, 뇌졸중, 호흡기질환, 영양실조 등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에 대한 돌봄의 절박함이었습니다. 무슨 사도직을 할 것인가? 그 사도직을 위하여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등은 방문 사도직을 우선 시작한 후 점차적으로 평가하고 식별하며 진행해나가기로 하였다.

선교지를 떠난 지 여러 해가 흘렀지만, 아직도 잊히지 않는 기억과 함께 그때의 감

동이 되살아납니다. 이웃이 되고자 심혈을 기울였던 노력에 어느 순간 그들의 입에서 '친구'라고 불렸을 때 경계가 사라지고 그들의 공동체에 받아들여져 이제 더는 이방인이 아닌 나를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으로 그들과 이웃이 되기 위해선 그들의 눈 높이어야 한다는 것을 체득하게 되었고, 돌아보니 이는 선교사로서 우선 갖춰져야 할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딱한 사정을 접할 때 즉시 도와야 한다는 강박관념 혹은 욕구를 견제해야 했던 도전을 기억합니다. 끼니를 거르며 올망졸망 모여 있는 아이들을 뒤로 두고 돌아 나오는 불편한 마음과 딱한 사정에 당장 배고픔을 해결함으로써 그 불편함을 털어내고 있는 나 자신은 정작 다음 끼니에 또다시 방치될 아이들과 구결이 습관이 될 태도에 대해선 등한시하고 있음을 성찰해야 했습니다. 때론 측은하지만 더디게 가야 할 때가 있고, 한편으로는 긴박하게 행동해야 하는 때가 있음을,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되물어야 하고 신중하게 관찰해야 했습니다. 그 자선 행위가 가져올 결과(장·중·단기)에 대해서 매 순간 물어야 하고 계속해서 식별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3년 11개월간 필리핀에서 첫 공동체 초석을 놓았던 시간은 마음 아픈 현실에 하느



님께 간절히 청하는 시간이었고, 여러 상황 속에서 자신과의 싸움이었으며 기쁨과 찬미를 드리는 날들이었습니다. 선교라는 주된 사명에서 벗어나 언저리에 있는 것들로 씨름하던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나약한 자신을 인정하고 한계를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음을 되돌아봅니다.

그들 안에 강생하시어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작지만 힘을 보탬 수 있다면 함께 하고 싶다는, 함께 해야만 한다는 절실함으로 해외 선교를 시작했던 기억은 선교지를 떠난 오늘도 여전히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 떼 가운데 말배들과 그 군기름을 바쳤다.” (창세기 4,4)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처음 필리핀에서 선교했던 이 프란츠 수녀의 글입니다.)



# 캄보디아에 사는 베트남 사람들 이야기

베트남 빈증 한글학교  
김 온유 수녀

베트남 빈증 한글학교에서의 선교 활동은 한국-베트남 부부 가정의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세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한 시간 정도 한국어 공부방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인 성소자 발굴과 한국에 있는 All My Kids(가난한 나라 어린이들 학비

지원 단체)에서 학비를 받아 지방에 사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베트남 수녀들이 운영하는 고아원과 양로원에 주 1회 자원봉사를 나가고 있습니다(우리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만나야 할 가난한 이웃들이기에 사도직을 하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일을 하





고 있지만 수도회 영성에 맞는 주도적인 사도직이라 할 수 없기에 여전히 저희에게 맞는 활동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도직을 펼치지 못하는 것은 베트남이 갖고 있는 특수한 여건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외국인 수도회뿐만 아니라 베트남 교회에 속한 수도회마저 수도회 영성에 맞는 다양한 사도직을 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 수도회도 주로 농사, 유치원, 양로원, 고아원, 피정의 집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파

견된 수도회도 대부분은 성소자 모임이나 한국 수도회 분원을 설립하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신의 폭이 좁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수도회 정신대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간절할 뿐 아니라 베트남 자매들이 서약을 한 후 고국에 돌아왔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마련해 놓아야 하는 과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올 7월 베트남에서 열린 동남아 지부 공동 피정과 연수에 총평의원 2명의 수녀님이 왔는데 조 예수의소피아

02 4행복학교 수업시간



03 4-1행복학교 아이들과 선생

수녀님이 캄보디아에서 베트남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를 운영하는 진홍경 목사님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공동체 수녀님들과 함께 목사님을 만났고 캄보디아에 사는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가난한 이웃들이 있는 곳에 가 보고 싶다고 하자, 캄보디아에서 실무를 하고 계신 다른 목사님을 소개해 주어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이웃 나라이지만 아주 오랫동안 애증으로 얽혀있는 사이입니다. 전쟁 동맹국이었을 때도 있었고, 서로 무력 침공하던 일도 있었으며,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점령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베트남인들이 캄보디아로 흘러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계획 있는 이민을 해서 주류에 속해 살고 있지만 잠정 추산 2백만에 가까운 베트남인들 중 대부분은 캄보디아 사회 변

두리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가는 곳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변두리에 있는 베트남인 집단촌입니다. 세월이 지나 여기 사는 많은 이들이 캄보디아에서 출생했지만 캄보디아 국적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일정 금액을 내면 거류증을 받을 수 있고 캄보디아 학교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우선 거류증 취득비가 너무 부담스럽고 설령 거류증을 얻었다 하더라도 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낮은 곳에서 아무런 보장 없이 사는 처지이며 미래를 꿈 꿔볼 희망조차 가지기 힘든 상태입니다.

## 탐방 일기

2019년 8월 15일 출발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갈 때 베트남 개신교 연합 선교 담당 목사님 4명과 동행하였다. 이틀 동안 이상구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 행복학교 다섯 곳과 학교가 있는 지역을 방문하였다. 이상구 목사님은 내가 캄보디아에 머무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안내해주었다. 베트남 목사님들이 캄보디아 베트남 교회의 행복학교를 방문한 이유는, 한국 목사님이 운영하는 이 학교를 앞으로 베트남 개신교가 운영하도록 권유받아서이다. 개신교 목사님들은 이틀 동안 학교를 둘러본 후 돌아가고, 나는 머물렀던 숙소를 옮겨 행





03



04

03 6행복학교 아이들  
04 4-1행복학교

복학교에서 자원봉사하는 베트남 청년(올해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 2명이 사는 쪽방에 합류했다.

**쯔바 암퓌 Chbar ampov 지역** : 8월 15일 도착한 날 오후 / 8월 18일, 19일 이 지역은 수도 프놈펜을 흐르는 메콩강변에 있으며 진흥경 목사님이 2004년에 1행복학교를 세운 곳이다. 이곳은 아이들부터 주변 환경까지 전형적인 빈

촌으로 우리가 방문한 지역 중 가장 가난한 곳이었다. 먼저 학교에 들렀는데 초등학교 전 학년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다. 교사도 자격을 갖춘 이가 없어 어느 정도 가르칠 능력이 있는 일반인들이 수업한다. 아이들의 수준이 모두 달라 성경 수업만 공동으로 하고 보통은 개별 숙제를 내주어 점검하는 형태로 수업을 하고 있었다. 정규 학교가 아니라 하루에 두 시간 정도 베트남어와 산수 등을 가르친다. 그런데 문자를 배우고 나면 아이들이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부모를 도와 일하러 가야 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인은 3년마다 체류 허가권을 구입하게 되면 캄보디아 정규학교를 다닐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가난하고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낮아 베트남 학교도 겨우 다니는 형편이었다.

8월 19일, 목사님에게 부탁하여 교사 한 명과 함께 아이들의 가정을 8군데 방문했다. 몇몇 가정의 상황을 말하자면 미혼모가 두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중국으로 가서 소식이 없는 집이 있다. 두 아이 중 막내는 겨우 아장아장 걷는데 쓰레기로 어질러진 집 앞 골목에서 혼자 놀고 있었다. 이들은 아버지가 다른데 첫째는 베트남 사람이고 둘째는 캄보디아인이라고 한다. 아이들은 육지로 옮긴 수상 가옥에 사는데 물도 화장실도 없는 집이었다. 무슨 일

을 하는지 차마 묻기 어려울 정도의 짙은 화장에 대낮인데도 잠자리에서 방금 일어나 부스스한 여자도 만나고, 부모들은 모두 일하러 가고 아이들이 어린 동생을 보느라 찢찢매는 집도 있었다. 하루 종일 뜨거운 더위에 노출된 채 캄보디아인 집 앞에서 마늘 껍질을 벗기고 있는 아낙네도 만났다. 초등학교 3학년 정도로 보이는 두 딸이 엄마와 함께 일하고 있었고, 젖먹이와 간신히 걸을 수 있는 아이의 얼굴은 엄마에게 매달려 우느라 눈물 번벌로 얼룩져 있었다. 깐 마늘을 하루 8자루 채워야 한다고 했다. 방문 동행자와 함께 쪼그리고 앉아 껍질을 벗겨 주자 그제서야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일어나 몸을 이리저리 움직인다. 많은 가정이 캄보디아 주인에게서 마늘을 받아 껍질 벗기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 간다고 한다. 목에 커다란 혹이 있고, 온 몸이 부어 있는 여인도 있었고, 아버지가 오토바이 수리를 하고 엄마는 미용실을 차린 안정된 듯한 집도 들렸다. 이 지역을 돌아 보면서 고달프게 사는 여성들과 돌봄을 받지 못해 방치된 듯 한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계속 남아있다.

17일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물어 이 지역 성당의 위치를 미리 알아보고 18일 오전에 성당을 찾아갔다. 성당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성당 앞에서 길거리 음식을 팔고 있는 아주머니에게 미사에 대해 물어보니 “미안마 사제가 주일에 와서 캄보디아어로 미사를 집전하신다.”라고 했다. 근처에 성당이 더 있는지, 신자들이 얼마나 되는

05 행복학교



05





06

지 등의 질문을 하자 냉대를 하기 시작했다.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그런가 싶어 같이 간 베트남인에게 다시 물어보라 했더니 그에게도 대답하지 않고 외면했다. 내가 궁금한 게 많아 상대방이 어찌 여길지 생각하지 못한 것이 미안했다. 나중에 한국 신부님들을 만나서 들어보니, 여기 베트남 사람들이 무척 배타적이고 외부인을 경계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 마을에 사는 개신교인들과 일반 마을 사람들을 거리감 없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목사님의 중개 덕분이었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다.

우리가 캄보디아를 방문한 목적을 이해한 이상구 목사님은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일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가난한 상황에서 여성들의 잦은 임신과 출산으로 아

기와 어머니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아이들도 제대로 돌봐 줄 수 없으며 위생 개념도 없어 건강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많은 여자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마사지나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위생 교육과 여성의 신체와 삶을 돌보는 교육이 필요하고 가정 방문을 통해 영양 상태를 돌보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런데 방문을 다녀 보니 이들이 거주하는 곳과 메콩강 건너편은 천지 차이였다. 강 건너편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화려한 도시였다. 머지않아 이곳에도 개발의 바람이 불어오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되면 그나마 있는 삶의 터전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 고달픈 삶이 끝나지 않고 이어질 것 같았다. 나중에 한국 외방 선교회 사제를 만

났을 때 이런 염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지금 찾아가지 않으면 언제 어디에서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주어진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쯔바 암퇘지 지역 내에 2행복학교가 있는데 이곳은 1학교 구역과 달리 일반 주택가이다. 판잣집이나 수상가옥 형태에 사는 1학교 지역 아이들과 달리 주로 베트남 사람들이 모여 있는 쪽방 촌에 살고 있다. 이를 동안 호텔에서 지낸 후 베트남에서 온 자원봉사 청년들이 사는 쪽방에서 함께 지내며 다른 지역으로 방문을 다녔다. 모든 행복학교가 교회 안에 있는데 2학교가 있는 교회는 선교를 위해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귀화한 목사님 가족이 살고 있다. 이곳의 전체 분위기가 안정되어 있었다.

**견달 Candal 주 지역 :** 8월 15일, 8월 18일 프놈펜 남쪽으로 20km 내려가면 견달 주가 있고 이곳에는 브니엘 행복학교가 있다. 대로에서 들판 사이에 난 샛길을 한참을 가다 보면 길을 따라 노점 천막이 즐비해 있으며 마을 가운데 개신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안에 학교가 있다. 교회 건물 옆에는 불교 건물이 있고 좀 떨어진 곳에 천주교 성당이 있다. 모두 베트남 사람들이 다니는 신앙 자리이다. 이곳은 캄보디아에 도착한 날에 방문하였는데 저녁이



06 4-1행복학교 아이들 마을  
07 물에서 물으로 올라온 가족

라 주변 환경은 잘 볼 수 없었고 아이들이 수업하는 것을 참관했다. 학생 수는 20명 정도이며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구분 없이 어우러져 공부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기숙사가 있었고 15명 정도의 학생들이 머물렀지만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다. 학생 수도 예전과 달리 변동이 심한데 주변에 잘 해주는 곳이 있으면 옮겨가기 때문이다. 비록 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정규학교가 아니고 교과목도 다양하지 않으며 의무도 아니라 교회에 묶여 있지 않는 아이들은 꾸준히 다니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모든 행복학교에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1행복학교를 보고 난 뒤라 어디를 가도 이 학교보다 더 심각하고 열악한 곳은 없는 것 같았다. 어느 행복학교를 막론하고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었다. 필사, 소리 내어 읽





08 브니엘 학교 기숙사

기, 내용 시험 보기 등. 아이들을 신앙인으로 키우는 것이 학교의 또 다른 목적이라고 했다. 이 지역은 주일 저녁에 다시 방문해 청소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두 번째 방문도 밤에 이루어져 주변 지역을 자세히 살펴볼지 못했지만 베트남인이 사는 농촌 지역으로 빼곡하게 들어선 집들과 판자집들로 이뤄진 마을이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일일 노동자로 살고 있었다.

#### 목사님 댁 방문 : 8월 17일

이 날은 쪽방촌의 자원봉사자 청년들이 영어를 배우는 날인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목사님 부인이 가르친다. 그들이 공부하는 동안 나는 목사님으로부터 베트남 사역과 학교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 듣게 되었다. 목사님은 행복학교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정규 과정을 갖춘 학교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갖

고 있었다. 또 대학생 장학사업, 청년 창업자금 지원 사업도 하고 있는데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하는 이유는 아무런 신원증명서가 없는 베트남 청년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갖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업 자금을 지원해 오토바이 정비소나 이발소 같은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 또한 우리 수도 회가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이곳에서 일을 하면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다. 비록 개신교에서 운영하고 있어 우리들이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베트남 가정을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고, 성당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일이 있을 것 같다고도 하였다.

#### 깜뽕 찌낭 Kampong Churning 지역 : 8월 16일

이 날은 수도 프놈펜에서 메콩강을 따라 120km 북쪽으로 올라간 곳, 톤레삽 강가에 있는 4행복학교와 4-1행복학교를 방문하였다. 예전에는 학교 앞 강가에 수상 마을이 있었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 철거하게 되자 모두 강 건너편 아래쪽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학교에 아이들이 많이 줄었고, 지금 있는 아이들은 아침에 학교 선생님이 배로 데려오고 수업이 끝나면 데려다주고 있다. 주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꾸리는데 수상 가옥 아래가 양어장이라고 한다. 목사님은 한 달에 한 번씩 각 학교를 방문하며 관리한다. 이곳도 아

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까지 배우면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고 일하러 간다.

4-1행복학교의 규모는 작는데 4학교에서 이주해 온 아이들까지 합해서 150명 정도이다. 아이들이 많아 3부제 수업을 하고 강에서 쫓겨난 아이들이 있다. 쫓겨나면 수상 가옥을 헐어 육지에 그대로 세운다. 그런데 육지로 올라오면 먹고 살 것이 없어진다. 수상 가옥에 살 때는 집 아래 양어장을 만들어 고정 수입이 있었는데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가 수상 가옥을 제외하면 강가를 따라 작은 마을이 줄지어 있는 풍경이다.

#### 쁘렉 뿌라 Prek Pra 지역 : 8월 20일

6행복학교 : 프놈펜 변두리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작은 읍 같은 풍경이다. 아이들이 가난하다는 느낌은 없었다. 이제까지 본 아이들 중에서 제일 활발하고 명랑했다. 이곳도 아주 가까이까지 개발바람이 불어 주변에 새 건물들이 세워지고 있다.

11행복학교 : 프놈펜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지역 이름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 지역은 베트남 사람들이 늪지대에서 라우무웅(동남아 베트남 채소, 우리나라 미나리처럼 물과 육지에서 서식)을 재배해서 생계를 꾸리고 있다. 이 채소는 값이 아주 싸서 많이 재배해도 수입은 적으리라 여겨진다. 이곳 학교의 두드러진 모습은 학생들이 대부분 너무 어리다

는 점이다. 조금이라도 힘을 쓸 수 있는 아이들은 라우무웅 수확을 하러 가기 때문에 어린아이만 있다고 한다. 늪 위에 수상 가옥을 세우고 배로 물을 오간다. 근처에 다른 마을이 없고 육지 가까운 곳에 수상 마을 하나가 있어 사람도 많이 살지 않고 아이들도 많지 않았다.



09 라우무웅 출하 작업

예수회 한국관구 : 8월 20~22일  
이상구 목사님은 탐방 여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큰 도움을 주었다. 캄보디아의 개신교에서 하는 일과 그 시선으로만 보지 말고 천주교가



하는 일과 천주교의 시선도 알아보는 것도 권유하시며 한국 예수회 센터로 안내해 주었다. 그곳에 목사님의 지인이 있었는데 내가 있는 동안에 다른 곳에 가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이리저리 애를 써서 그곳까지 데려다주었다. 선교사들에게는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는 예수회 센터에서 8월 20일 저녁부터 22일 캄보디아를 떠날 때까지 머무르게 되었다. 예수회 사제들은 내가 방문한 이유를 듣고 베트남인이 있는 본당에서 사목하는 한국 외방선교회 사제를 소개해 주었다. 21일에 프놈펜교구에서 성당 사목을 하는 윤대호 다니엘 신부님을 만날 수 있었다. 다니엘 신부님으로부터 캄보디아에서의 천주교회와 베트남 신자들의 상황에 대해 여러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신부님은 프놈펜교구에서 유일한 한국 사제이며 7지구에 속한 지역에서 본당 세

10 한국외방전교회 윤대호 신부



곳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생활성이 작곡을 했고, 여기에서도 음악을 통해 선교에 활력을 불어 넣고 캄보디아 전례 음악을 새롭게 마련하였다고 한다. 2만 명 정도의 천주교 신자가 있으며 그들 중 70%가 베트남 사람이고, 신부님이 맡고 있는 성당도 대부분 베트남 신자들이며 미사는 캄보디아 천주교회의 방침에 따라 캄보디아어로 한다고 한다. 우리 수도회가 좋은 지향으로 오는 것만 먼저 교구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음을 알려주고, 이 밖에도 신부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다.

나는 무엇보다 베트남 사람인데 캄보디아어로 전례를 해야 한다는 것에 그들이 가엾게 여겨졌다. 내 경험으로 베트남어 미사를 하다가 한국어 미사를 하게 되면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고, 감동과 영적 새로움이 솟아나는데 베트남인들도 그들 말로 미사를 한다면 나와 비슷한 생동감을 얻지 않을까? 캄보디아에 베트남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되기까지 두 나라가 겪은 역사를 교회가 받아들이고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로 대우받으며 함께 살아갈 방법은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다.

#### 마무리

목사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낮은 자리에



11 안내해 주신 이상구 목사

있는 개신교 베트남인들의 세상에 들어가 본 것은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종교의 경계를 넘어 그들과 연대한다면 훨씬 풍요로운 일이 전개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낮은 곳에서 성실하게 사역하며 가난한 이들을 품어 주는 목사님의 삶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새 출발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분이 협조자로 계신 것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소중한 기회라 여겨졌습니다. 목사님은 우리가 그곳을 다시 방문 하더라도 기꺼이 함께 해 주실 수 있다면 우리의 좋은 뜻이 잘 실현되면 좋겠다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매일 미사 독서와 복음이 낮은 곳으로 떠나는 저를 격려하

고 힘을 주었으며 만나는 모든 이들의 도움으로 캄보디아 탐방을 잘 마쳤습니다. 되돌아보면 모두가 은인이었고 그 정점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아이들이 베트남까지 따라오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오래 머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무언가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다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시 가게 된다면 우선 그들의 이웃으로 가까이 다가가 함께 머물고 무엇을 주기 위해 들이대지 않으며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알아보고 우리도 그들을 축복해 주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찜나옴 성당 가을 이야기

캄보디아 바탐방  
이 마리아쿨베 수녀

가을이 없는 캄보디아는 8월이 지나면 비가 내린 후에 서늘한 기운이 느껴져서 마치 한국의 초가을 처럼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러나 곧 태양이 얼마간 내리쬘고 나면 습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한낮이 건기처럼 뜨겁다. 올해는 우기가 시작되어도 비가 내리지 않아 작년에 이어 벼농사를 짓는 교우들의 시름이 깊어진다. 낱알이 제대로 여물지 못한 상태로 추수를 해서 혈값에 팔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우들은 이보다 더한 악조건이 생겨도 그냥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많은 사람들이 1년에 2모작을 하는데 “이번엔 그랬지만 다음 추수 때는 좀 나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얼마 후 다시 씨를 뿌린다. 농사짓는 교우들도 바쁜 계절이었지만 우리 성당도 9월, 10월이 분주하게 돌아갔다. 몇 가지 기억에 남은 일들을 적어보려 한다.



01 <반티 프리업> 장애인 기술학교에서 오인돈 신부가 리치 수사에 대하여 설명





02 라자 신부님과 교우들이 주일미사 후에  
우물 축복식

03 수류탄이 터졌던 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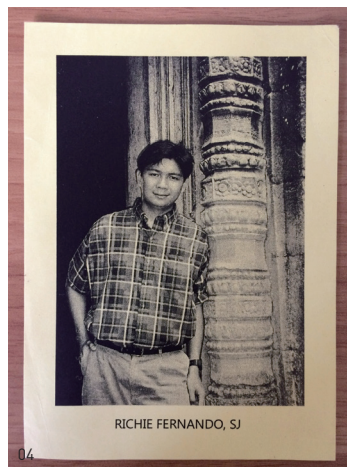


### 성당 우물 축복식 9월 1일

지난 6월 중순 시작한 우물 시추작업은 성공리에 끝났다. 깊이 1,500미터 이상에서 맑은 물이 쏟아졌고 모든 시험 결과 양질의 식수라고 통보 받았다. 이후 사람들이 물을 담아 가기 쉽도록 주변을 편리하고 깨끗하게 정돈하였고 9월 1일 주일 미사 후 라자 신부님의 우물 축복식을 가졌다. 점차 많은 교우들이 물통을 가져와 물을 담아 가고 있다. 그레이스 수녀님은 그동안 깨끗하지 않은 식수 때문에 생기는 여러 질병으로 마음 아파했기에 누구보다 기뻐하였다. 우리 마을에 주신 축복의 선물이며 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 성소 캠프 참가, 예수회 <반티 프리업> 방문 9월 4일~9월 8일

전체 교구를 대상으로 하는 '2019 성소 캠프'가 프놈펜 성당에서 열렸다. 약 3백여 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기도하고, 강의 듣고, 나눔 하는 시간이었다. 우리 성당에서는 복사단 7명이 참석했다. 캠프가 다 끝나고 쾨나옴으로 돌아오기 전에 아이들을 꼭 한 번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예수회 <반티 프리업>이었다. 프놈펜 근교에 자리하고 있으며 국내외에 잘 알려진 장애인 기술학교로 이곳 한 건물에는 '리치 페르난도'라고 불리던 키가 크고 건장한 필리핀 예수회 수사의 오래된 사진이 걸려있다. 1996년 10월 17일 리치 수사는 전임자 토렛 수사(현 토렛 신부)의 뒤를 이어 실습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당시 퇴교를 당한 한 캄보디아인이 불만을 품어 수류탄을 들고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왔다. 이를 본 리



치 수사는 그를 붙든 채 시간을 끄는 사이 장애인들은 모두 교실을 빠져나갔는데 수류탄은 이미 바닥으로 굴러간 상태였다. 리치 수사가 그를 뒤에서 안고 있었을 때 수류탄은 폭발했고, 리치 수사는 그 자리에서 선종했다. 그의 나이 26세. 그가 뒤에서 안고 있던 수류탄의 주인은 목숨을 구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의 동료였던 토렛 수사가 사제가 되어 쾨나옴 성당 주임 사제가 있었을 때 한 남자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는 그에게 '리치'라는 세례명을 주었다. 리치는 지금 복사단에서 활동 중이다. 이 날 예수회 오인돈 신부님이 아이들에게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는데 꼬맹이 '리치'도 함께 했다.

### 루이스 성인과 질레 마땅 성녀 유해를 모시고 드린 미사 9월 10일

올해 캄보디아는 아기 예수 테레사 성녀의 부모, 성 루이스와 성녀 질레 마땅의 유해를 모시고 주요 성당에서 미사를 바쳤다. 오래전에 아기 예수의 테레사 성녀의 유해를 쾨나옴 성당에서 모시고 미사를 드린 적이 있어서 교우들은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성당 정문에서 긴 행렬로 유해를 맞이했다. 유해는 청동 모양의 약 1미터가 안 되는 관 안에 모셔져 있었고 청동관에는 루이스와 질레 마땅히 처음 만나서 사랑하게 된 '다리'가 새겨져 있다. 교우들과 미사를 시작하기 전에 테레사 성녀와 가족에 관한 동영상도 함께 시청하였다. 미사 후 유해는 시엠립 성당으로 옮겨졌다.

04 리치 수사

05 성 루이스와 성녀 질레 마땅의 유해







### 캄보디아의 <푸춤 번> 9월 13일~9월 29일

캄보디아의 두 개의 최대 명절이라면, 매년 4월 즈음의 <쥘 츠남: 새해>과 9월과 10월 사이의 <푸춤 번>이다. 푸춤 번은 죽은 조상들을 기리며 15일 동안 기도를 하는 데 이때 밥을 둥글둥글하게 말아서(이를 '번'이라 함) 갖은 음식과 함께 절에 가서 기도하고 스님들에게 공양드리는데 전통이다. 새벽 4시면 절에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캄보디아에서 지낸 첫해에는 새

06 <푸춤 번> 전날 무덤에서 초를 켜고 기도  
07 <푸춤 번> 기간 위령기도회



벽 4시부터 울려 퍼지는 이 소리에 깜짝 놀라 보름 내내 잠을 설쳤던 기억이 난다. 썸나옴 성당은 프랑스 신부님들이 계실 때부터 이 전통을 가톨릭 신자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형하여 고유한 방법으로 지켜오고 있는데 방식은 이리하다. 썸나옴 성당 모든 신자들이 가족 단위로 조상들의 이름을 모두 적어 리스트를 만들었다. 선종하는 교우들이 생길 때마다 리스트에 추가된다. 그리고 매년 제비뽑기를 하여 가족단위로 기도하는 날짜를 정하고, 보름 전부터 매일 오후 3시에 해당 가족들이 모여 약 1시간 동안 위령기도를 바치고 다음 날 아침 9시에 위령미사를 바친다(이름을 모두 호명함). 위령미사를 마치고 나면 참석한 모든 이들이 미리 준비해 둔 식사를 함께 한다. 이렇게 하면 한 가족의 기도가 끝나는데, 대부분의 캄보디아 시골 마을이 그렇듯이 직계가 아니더라도 양가의 가족들이 걸쳐 있고 서로 친척 관계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 3~4번 이상 이 예식에 참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예식에 참석하고, 음식을 같이 만들고, 함께 나누고, 정리하는 독특한 문화가 생겼다. 쉽게 말하자면, 1년에 한번 보게 될 잔치가 보름 동안 매일매일 이어진 셈이다. 그렇게 하여 <푸춤 번>의 당일 전 날 해 질 무렵에 사제와 교우들이 다 같이 성당에 모여 기도를 하고 이후에 성당 옆 묘지에 가서 저마다 가족의 무덤에 초를 꽂고 기도하



08 성당 주보성인 축일 행렬 준비

는데 이때 사제는 무덤에 성수를 뿌린다. 올해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름을 보냈고 당일 아침 미사 후 전 신자가 같이 식사를 하였다. 이렇게 보름간의 <푸춤 번> 예식이 모두 끝났다. 참고로 캄보디아 가톨릭은 이런 특수 상황 때문에 교황청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예외적으로 <푸춤 번> 당일 미사는 모든 성인 대축일 미사로 집전된다. 따라서 11월에는 위령성월 분위기가 없고 11월 1일 대축일미사도 평일미사로 봉헌된다.

### 성당 주보성인 축일: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 대축일 미사 10월 6일

올해 성당 주보성인 축일은 10월 6일 주일로 이동하여 대축일 미사로 지냈다. 이

날은 데레사 성녀상을 제단 위에 예쁘게 꾸며놓고 신자들은 장미꽃을 한 송이씩 들고 동네 반바퀴를 돌면서 행렬한다. 데레사 성녀상을 가마에 태워 행렬하거나 올해처럼 성녀의 사진 액자를 들고 행렬하기도 한다. 행렬이 끝나면 장미꽃을 제단 위 성상 앞에 봉헌하고 미사가 시작된다. 주일 봉헌금을 잘 내지 못하는 신자도 봉헌을 위한 장미꽃은 거의 사는 것 같다. 썸나옴 성당은 특별한 날의 행렬이나 교우들의 집 앞에서 드리는 십자가의 길 등 오래전부터 해오던 방식들을 잘 보존해오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어린이들에게 이 날을 잘 기억하도록 도와주고, 또 이 날을 기다리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다.



## 우리의 작은 희망의 씨를 뿌리며

볼리비아 산 홀리안  
이 체칠리아 수녀

2018년 한 해는 어린이집 소임을 했기에 가정 방문 사도직을 할 수가 없었다. 단지 시간과 몸 상태가 허락되면 공동체 수녀님들이 방문할 때 함께 동반하는 정도였다. 어린이집 소임을 마치고 올해 본격적으로 가정 방문 사도직을 하게 되었는데 생각처럼 쉬운 건 아니었다. 방문 사도직 하면 가정을 방문하며 서로를 알아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는 다르게 막막함이 밀려왔다. 어떤 형식이 있고 시간표가 있어서 그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일은 어느 집을 방문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찬 채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일어나기 일쑤이다.

기존에 방문하던 집을 토대로 한집 한집 방문을 하면서 여기에서 나는 무엇을 느

끼고, 어떤 의미를 찾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가난한 사람이며 동등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 방문을 할 때는 누구를 도우려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말동무가 필요한 곳에 벗이 되어 주고,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며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는 나의 생각과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관계를 맺게 되다 보면 나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눈에 보이는 성장을 찾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누군가에게 주고 있는 입장으로 관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에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동반을 해야 하는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야만 한다. 올해 우리 산 홀리안 공동체는 형식이 없는 가정 방문 사도직을 구체화하여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고 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다운증후군 아이인 나탈리아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동반하는 것이었다. 나탈리아를 처음 만난 것은 2018년 초, 성당에서는 가난한 집에 식료품을 나눠 주는 행사를 마련했는데 이때 인판시아(교황청 어린이 선교단)에서 나탈리아 집을 방문하던 날로 기억된다.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고, 씻지도 않은 상태에 옷만 입혀 놓고, 머리는 산발인 모습이 약간 충격이었다. 이곳에 3~4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 밖에 나와 그런 상태로 놀고 있기는 하지만 다운증후군이다 보니 더 심각하게 보였다. 그 이후로 가끔 방문을 하고, 공동체 수녀님들의 말을 전해 들으면서 그 아이의 집 환경이나 가족 관계



를 천천히 알아가게 되었다. 가족의 습관화된 무기력과 만성이 되어버린 그들의 생활 패턴에서 무언가 변화라는 실마리를 찾아볼 수 가 없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장애로 태어난 나탈리아 또한 돌봄과 교육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올 초부터 정기적으로 나탈리아 집을 방문하면서 아이에게 노래와 율동, 동물놀이, 천을 이용하여 놀기 등의 반복적인 행동을 통하여 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족들에게는 나탈리아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독려하며 조금씩 천천히 그 가정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엄마인 수산나 자매는 길거리에서 폐트병에 석유를 넣어 팔았다. 집을 방문할 때마다 머리와 자궁 쪽이 아프다고 호소하여 공동체 수녀님들과 상의를 한 후 개인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하였다. 영양 부족으로 많이 약해져 있으며, 탈장이 의심된다는 소견과 함께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받을 것을 권유해 주었다. 일단 큰 병이 아니라 안심이 되었다.

수산나 자매는 치료를 받고 나오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나에게서 엄마와 같



은 마음을 느꼈고, 아무도 자기를 이렇게 대해 주지 않았으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나 또한 뭉클했다. 한 여인의 삶이 확 스쳐 지나갔다. 6명의 아이 엄마로, 한 남편의 아내로, 몇 푼 벌기 위하여 그늘조차 없이 30도가 웃도는 땡볕에 서서 가솔린을 팔고 있는, 다른 삶은 생각조차 할 수 없고, 가난하고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이 내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시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큰 딸에게 설명해 주고 서로 헤어졌다.

이곳 사람들은 한 번의 급한 순간이 끝나면 다음부터는 미루는 성향이 있어 전화를 하고, 집을 찾아가 시병원에 가서 접수를 했는지를 독촉하여 확인하는 상황까지 가야 우리의 일이 일단락되는 것이다. 수술비와 입원비는 무료지만 수술 재료나 약 등은 직접 구입을 해야 해서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기에 직접 본인이 접수하게끔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그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상상하며 어떻게 할지를 준비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다행히 수산나 자매는 수술을 받고 가족들이 돈을 모아 수술 후에 필요한 것은 가족 안에서 해결했다. 이 계기로 가족이 함께 모이고 가족애를 느끼는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기쁘다가도 또 제자리인 듯 옛날의 모습 그대로를 볼 때는 그전보다 실망감이 더 크게 다가온다. 그렇지만 그들이 부르는 소리에 활짝 웃게 되는 내 모습에 다시금 발길을 옮길 수밖에 없다.



가정방문을 통한 가정의 복원과 복음화를 이루려는 우리의 작은 희망의 씨를 뿌리는데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자꾸 발을 옮겨 보게 된다.

하느님 강생의 신비를 체험하고, 그들 안에서 하느님의 모상을 찾아내고, 빛을 발견한 기쁨이 충만하여 방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가난한 이들의 모습에서 강생의 신비를 체험하도록 나를 이끌고 계시는 것 같다. 가정 방문을 통해 서로가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안으로 들어가 신뢰가 쌓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더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때로는 알 수 없는 무기력함과 초조함이 밀려올 때도 있다. 그렇지만 가난과 질병, 소외와 좌절, 습관화된 무기력으로 고통받는 가정 안에 머무르면서 스스로 일어나 설 수 있는 힘을 나 자신에게서 찾아내도록 기회를 주신 하느님과 함께 라면 역동적이며 매력적인 사도직이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

## 작은 것을 일구어나가는 소비녀!

볼리비아 비루비루 탁아소  
김 마리비타 수녀, 이 폴 수녀







01 카트엘  
02 동네길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마태 25,14-15)

모든 것이 가속화 되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볼리비아 아이들의 감정과 지구의 감정을 읽어 내어 새 생명이 자라게 하고 환경이 보전되도록 공동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흐름을 읽어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읽어낸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더 어렵다. 이 어려움은 바위에 계란치기이지만 어느덧 6년이란 시간을 이어왔다. 우리가 하는 일은 큰일도, 보이는 일도, 알아주는 일도 아니다. 다만 각자의 능력에 따라 주신 탈렌트를 잘 활용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 부모와 아이의 간절한 마음

부모와 아이의 마음은 모두 간절하다. 그러나 목적이 서로 다르다. 부모는 아이가 탁아소에 잘 있어주길 바라고 아이는 부모 곁에 있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그렇게 강제로 아이를 맡기고 떠나는 부모와 울면서 탁아소에 소란을 피우고 다니는 아이를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도 힘들고, 간절한 그들의 마음 어느 편에도 속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다. 카트엘 이라는 남자 아이가 있었다. 그 아

이는 탁아소를 탈출하기 위해 의자를 놓고 문 위로 올라가 쇠 창살로 빠져나가려고 했으나 발각되어 실패하더니 또 다른 방법의 하나로 어떤 분이 자기를 데리러 왔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뜻을 이루지 못하자 내내 울고만 있다가 성모상 앞에 가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 “성모님! 이곳을 나가 엄마가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제발 나한테 해 주세요!” 그 모습을 보고 아이의 기도를 묵인할 수 없었다. 부모를 만나 사정을 얘기했지만 부모들도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막막한 표정만 지었다. 하지만 성모님은 아이의 편을 들어주셨다.

### 일등으로 등원하는 브렌다와 마지막으로 귀가하는 니샬리

40명 정도의 아이들은 8시부터 8시 30분 사이에 등원하고, 귀가 시간은 4시이다. 하지만 브렌다는 부모가 일찍 직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아침 7시에 온다. 그리고 니샬리는 방과 후 1시간 후에 부모가 온다. 이 아이 하나를 받아들이기 위해 아침과 오후 1시간 전부터 움직여져야 하고, 1시간 이상이 지연되는 일상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아침 먹을 시간도 없이 밖에서 문을 두드려대는 소리를 들을 때, 저녁에 미사라도 있을 때, 우리와는 상관없이 빨라지고 늦어지는 부모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 작은 봉헌으로 한 가정의 안정적으로 일터에서 일 할 수 있다는 생

각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 척박한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볼리비아는 쓰레기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길과 도로 심지어 집 앞이나 옆에다 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회용품은 비용도 싸고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전염병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다. 탁아소 옆에 공소가 있는데 그 뒷 터도 역시 쓰레기로 가득했다. 게다가 잡초가 무성하여 뱀이 가끔 탁아소로 들어왔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공동체와 상의한 후 우리들이 관리하겠다고 하였다. 농약을 사용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수녀들이 예쁘게 가꾸 놓으면 신자들에게 보여주는 환경교육이 될 것 같았다. 그런데 풀을 뽑으면 습한 날씨로 금세 자라나는 것이었다. 땀별에 힘들고 지쳐가기도 했지만 목적 하나만 생각하고 자투리 시간을 모아 열심히 가꾸었다. 모래땅이라 생명들도 잘 자라지 않아 음식물을 묻어 주기도 하고, 흙을 사다 뿌리기도 하였다. 우리의 노고를 땅이 알았는지 생명들은 우리의 원의대로 잘 자라 주었다. 노고는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 모래가 날려 창문 여기저기에 수북했던 모래도 막아주고, 걸어 다닐 때 신발 안으로 모래가 들어오는 불편함도 막

아주었고, 그들과 채소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곳을 본다는 것이다. 본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 다는 것이고 그래서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 버려지는 자원을 회수(폐지)

누군가가 버린 것을 다시 재 작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장을 갔다가 헌 책방에서 폐지를 산다고 하는 정보를 듣고 사람들에게 폐지를 버리지 말고 그곳에 팔거나 공소로 가져오라고 했다. 가져온 폐지를 정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일은 더 힘들다. 사실

폐지를 팔아도 돈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정보를 알려 주어도 실천을 안 하게 된다. 한 번에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 시장가는 날을 이용하여 몇 번에 걸쳐 나가서 팔게 된다. 책방 주인도 안 되었는지 작은 단위로 그냥 올려준다. 사람들이 “그것을 팔기 위해 나가는 차비 비용이 더 들지!”라고 말하면 돈을 벌기위한 목적보다는 환경을 살리고자 하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라고…。 정리해 놓은 폐지들을 보면 가지고 나가는 일이 걱정은 되지만 흐뭇하다. 이 종이가 버려지고, 태워지면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고, 나무는 더 많이 베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폐지를 계속 가져오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가져오는 사람에게는 상으로 휴지 하나를 주기도 하고, 화초를 사서 공소에 심기도 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알려준다. “당신의 폐지로 산꽃이니 당신의 꽃입니다. 그러니 잘 가꾸십시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참 행복하고 뿌듯하다.

### 버려지는 자원을 회수(깡통)

길에 버려진 깡통은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다. 길을 걷게 되면 맥주 깡통이 한 두 개씩 떨어져있다. 그냥 지나쳤었는데 이제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 자원으로 돌아가게 하고 싶은 마음에 모으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방문을 다니거나 시장을 다닐 때 길에 떨어져 있는 깡통을 주워 모으는데 이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더 재미있다. 우리의 목적은 단지 환경보전인데 그들은 수녀들이 깡통 모으는 것을 보고 웃기도 하고, 측은하게 보기도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또 어떤 집은 “우리 집에 맥주 캔 많은데 줄까?” 하고 선물로 주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깡통을 팔아 모여진 돈으로 교황청 어린이 선교단에 간식을 사주기도 한다. 비록 사탕 몇 개에 불과하지만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과정을 가르치고 환경을 보전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작고 어찌보면 불편한 일이지만 끊임없이 실천하다 보면 큰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소비녀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할 뿐이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좋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마태 25.21)





## 해외 선교를 시작하며

아르헨티나 알바레스병원  
정 요안나프란치스카 수녀

여기 온지 벌써 3개월이 지났다. 해외 선교지에서 이렇게 소임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웬지 해외 선교는 다른 수녀님들의 자리라고 생각하였다.

해외 선교 제안을 받았을 때, 너무나 당황했고,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지금이 좋은데 왜? 가야하나? 많은 생각과 고민이 되었다. 마치 처음 수녀원 들어 올 때 갈등하던 그 때와 같은 마음이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게 뭘까? 그동안 살아 오면서 하느님께 받은 선물이 많아서 언젠가는 나에게 뭔가를 원하실거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것이 지금이라는 거절할 수 없는 확신이 나를 이곳까지 이끌고 계셨다.

인천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을 위해 혼자 기다리며 “정말 해외 선교가 시작되었구나!” 생각했다. 그 먼 거리를 혼자 가야한



다는 두려움으로 더욱 간절하게 하느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청했다. 미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을 때의 그 안도감이란... “내가 해 냈구나. 혼자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느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구나!” 하는 흥분과 함께 마음이 벅차 올랐다.

5월 30일에 도착한 후 긴장과 설렘 속

에서 선교의 문턱을 넘게 되었다. 6월 15일부터는 언어 공부를 위해 아씨시 프란치스코 수녀원 아르헨티나 관구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이 공동체는 51년째 요양원을 운영하며 할머니들과 함께 생활하는 곳이다. 낯선 나라에서 더군다나 한국 수녀도 없고, 외국 수녀원에서의 생활은 언어, 음식 등은 물론이고 사람들과의 생활 역시 쉽지 않았다. 현재 총원에서 면학 중에 있는 베트남 자매들을 떠올리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침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도 혼자 있는 느낌, 대화에 참여할 수 없고, 웃어도 왜 웃는 것인지 전혀 모른채 앉아 있어야 하는 불편한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나와 같은 사람인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사실과 그 주인공이 내 자신이라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왜 내가 여기에 있는 걸까? 모든 것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온 정신을 모아서 귀여겨 들어야하는 상황이었다. 사전을 찾아 말을 하지만 금새 잊어버려 다시 찾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면 저절로 눈물이 흐르는 시간이 많았다. 한국에 있으면 도저히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이 펼쳐지는 시간들이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할머니 수녀님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셨고 부족하지만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조금씩 대화를 하게 되면서 편해지기 시작했다. 평생 수도생활을 하신 수녀님들과 함께 생



활하면서 누가 가난한 사람인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심을 볼 수 있었다.

수도회에 12세, 15~16세에 입회하여 평생 살아오신 삶의 전부가 수도생활인 것이다. 지금은 모두 80세 이상으로 언제 하느님 나라에 갈지? 그 날을 기다리며 살고 계시다고 말씀하신다. 다시 태어나도 수도자가 되겠다는 수녀님들의 소녀 같은 모습을 뵈는 때 한국에 계시는 할머니 수녀님들의 모습과 교차되었다. 자신의 불편함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기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서로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아직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일까? 매일 만날때마다 상냥하게 웃으시는 모습에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고 있다. 수녀님들의 여유로운 생활의 모습이 보기에 좋았고 덩달아 안정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한편으로 귀에 들





어오는 것 중에 하나는 “기다려, 천천히”란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느려서 답답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런 여유로운 마음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받아들일 수 있는 배려가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오는데 앉아 있던 꼬마 남매가 내리려고 문 앞에서 서 있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서너 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 아이가 앞으로 쏠려 넘어지려 할 때 대어섯 살쯤 되어 보이는 누나가 팔을 잡아 주자 “고마워” 하며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어찌나 예쁜지 혼자서 웃었다.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감사함을 배우고 표현하는 것이 이 나라의 문화인 것이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상대방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느낌이 크게 다가왔다. 왜 저렇게 할까? 하는 자신의 판단을 하지 않고,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해 주는 경우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우리 각자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느님 나라를 더욱 풍성하게 함께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당연하다 생각하면서도 언어가 부족하여 마음을 표현하는데 답답하지만 그래도 하느님 앞에 무수히 많은 말을 쏟아내며 위로를 받고 있다. 모든 것이 어렵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려한다. 이런 세상이 있구나! 내가 살아 본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나라에서 하느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유치할 만큼 신기하고 새로웠다. 세상에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겸손함을 통해 좀 더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펼쳐질 시간에 충실히 살아가고자 한다. 우리 수도회의 총장 수녀님과 모든 수녀님들이 깊은 내면에서 행복감이 늘 피어오르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 후원



선교 수녀들이여!

하느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참으로 중요하고 요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사명도 실로 중요합니다.

선교 수녀들이여!

더욱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가십시오.

가서 가난하게 살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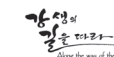
가난한 교회가 되십시오.(설립자 신부)

설립자 성 신부의 말씀에 따라 성가소비녀들은 국내에서는 물론 아르헨티나, 중국, 볼리비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파견되어 가난한 교회가 되어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후원 계좌** 국민은행 036101-04-030207 재)성가소비녀회

TEL. 02)940-5815, 5816

※ 입금 후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을 생각해서 재생용지로 인쇄합니다.



## 해외 선교 지역

### 베트남 빈중

7, duong lo so 2,- khu TDC Phu Hoa, Khu 7, Phuong Phu Hoa,  
thi xa Thu Dau Mot, Tinh Binh Duong, Vietnam

### 중국 분양

032203 中國 山西省 汾陽市  
汾阳三皇庙巷 39号 天教堂

### 중국 연길 연변호스피스병원

133000 中國 吉林省 延边朝鲜族自治州 延吉市  
依兰镇 兴安村 延边宁养医院

### 캄보디아 바탐방

Pet Yiey Chee Catholic Compound  
Rumcheck 1 Village, Rattanak Commune  
Battambang District, Battambng City P.O. Box 330  
Kingdom of Cambodia

### 필리핀 빠라나케

3822-C Mabini Dongalo, Parañaque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 아르헨티나 한인성당

Parroquia de los Santos Mártires Coreanos  
Thorne 1261 1406 Capital Federal BS. AS. Argentina

### 아르헨티나 차코 아비아 페라이 공소

Capilla N.Sara del Rosario Casa de las hermanas  
3706 Avia Terai Chaco, Argentina

### 아르헨티나 알바레스 병원

Aranguren 2701(Hosp. Alvarez)1406  
Capital Federal BS. AS. Argentina

### 아르헨티나 에바 페론 병원

Capilla del Hospital Eva Peron Nuestra Senora de Lujan  
Balbin (101) 3150  
B1650 NBN San Martin  
BS. AS. Argentina

### 볼리비아(뿌에스토, 산 홀리안, 비루비루 탁아소)

Las Pequeñas Siervas de la Sagrada Familia  
Casilla 25, Santa Cruz. Bolivia